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부산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혜란

교육학석사학위논문

부산지역 초등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학부모 인식

지도교수 류 은 순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8월

부경대학교교육대학원

영양교육전공

김혜란

김혜란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7년 8월 30일



주 심 공학박사 최진호 (인)

위 원 이학박사 이경혜 (인)

위 원 이학박사 류은순 (인)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을 위한 가설 설정	6
3. 용어정리	7
가. 영양교육	7
나. 학교급지	7
다. 식행동	8
라. 영양지식	8

II.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영양교육 발전동향	9
2.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시의 필요성	10
3. 어머니의 영양교육 필요성	12
가.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	12
나. 어머니의 영양지식·식행동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	13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16
2. 연구기간	17
3. 조사도구	17
가. 일반적 특성	17
나. 자녀의 영양교육실시 조사도구	17
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태도 조사도구	18
라. 어머니의 식행동 조사도구	18

마. 어머니의 영양지식 조사도구	19
4. 자료분석	21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3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영양교육 인식	27
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38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47
5.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에 따른 자녀 영양교육 인식	52
6.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59
7.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실태에 따른 자녀영양교육 요구도	64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73
2. 결론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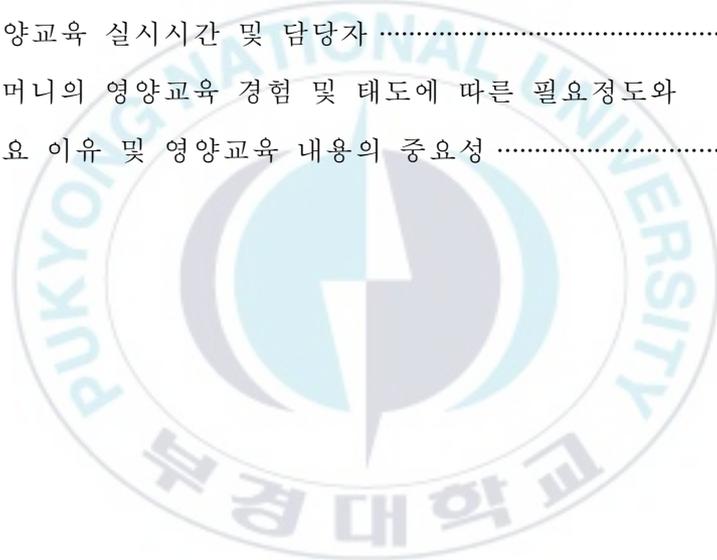
참고문헌	79
------------	----

부록	84
----------	----

표 목 차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20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4
<표 3> 학교급지에 따른 가정의 월소득과 어머니의 학력분포	26
<표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31
<표 5>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담당자	32
<표 6>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영양교육 필요정도와 필요이유 및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	37
<표 7> 인구사회학적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41
<표 8>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방법 효과 인식정도	44
<표 9> 어머니의 영양지식 정보원	46
<표 10>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	49
<표 11> 어머니의 영양지식에 따른 식행동 점수	51
<표 12> 어머니의 영양지식, 식행동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51
<표 13>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54
<표 14>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담당자	55
<표 15>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필요정도와	

필요 이유 및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	58
<표 16>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62
<표 17>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63
<표 18>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인식	66
<표 19>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담당자	68
<표 20>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필요정도와 필요 이유 및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성	70



그림목차

<그림 1> 연구모형	5
<그림 2> 가설모형	6



THE PERCEPTION OF PARENTS' NUTRITION EDUCATION FOR
ELEMENTARY SCHOOL IN BUSAN AREA.

Hye Ran Kim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order to present the education plan that school can offer, and the education for mothers and their children to know by researching on the understanding and demand measures of nutrition education by social demographical features and actual status of mothers'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level, these were studies with mothers who give a big effect on children for dietary life as the manager of the table.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5 to 12 2006,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is research was examined on 611 mothers of the fourth grade in six different elementary schools belonging to Busan District Office of Education. For the significant test between factor t-test ANOVA and Chi-square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package of SPSS WIN 10.0.

The result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children it receives a periodical nutrition education from the school the whole answer 20.5% is receiving a nutrition education, and many subjects responded that preschool years or elementary low grades are the most proper time for nutriti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education background.

In the education hours, they responded that it is proper one hour a month and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education level, whether or not the mother had a career.

The perception for a suitable person to teach the nutrition education showed school dietitian, outside professional dietitian, nurse teacher, charge teacher, parents in order and the time of that is a related class, school lunch time, discretionary activities, special activity, school broadcast, individual consultation in order.

The most mothers recognizes the necessity of nutrition education from the school very highly, the reason must execute a nutrition education growth of students, correcting for unbalance diet,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 table manner, obese, knowledge of food and nutrition in order. Importances of the contents of a nutrition education were proper eating habits, food safety, disease, food waste, health weight, method of selection food, table manner, traditional food in order and significant difference depending on social demographical features.

2) Mothers with experience in having a dietary life education were 43.9%, 86.4% of mothers wanted to get the education, there were not difference demand on social demographical feature. The mother of most does a children systematic nutrition education and significant difference by school group.

The mothers understanding effective indirect education which uses the internet or the printed matter compared to directness from the school. The most frequently used sources of the nutrition knowledge were mass media such TV, newspapers, internet and neighborhood, friends.

3) Most of the mothers had an above average knowledge about nutrition. The dietary behavior and nutrition knowledge scores of mothers influenced by

general characteristics as age, education, occupation, family income. Dietary behavior score of mothers was tend to higher score with increasing nutrition knowledge level.

4) Dietary behavior · nutrition Knowledge score will increase along with mother experience nutrition education and effect to frequency of teaching children frequency dietary life. The effective degree which it follows in instructional method is difference demand on dietary behavior · nutrition Knowledge score.

The improvement of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of the mothers are very important because their dietary habits and nutrition knowledge have an influence on formation of children's dietary habits. We suggest that schools open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s for mothers in order to acquire proper nutrition information and that schools and homes should be more closely connected.

Therefore, through continuous nutritional education at home and school, the growth in the chance of a nutrition education for children and parents, especially mothers who are the manager of the table,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for that, the practical development of a nutritional education program is be need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능력과 더불어 식생활습관을 습득하는 시기로 어릴 때 식품에 대한 경험은 식품에 대한 기호 및 식사행동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일생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일단 형성된 성인의 식습관은 쉽게 교정하기 어려우므로 어릴 때 가정과 학교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습관을 가지고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Luepker *et al.*, 1996 : Sharon *et al.*, 2005).

사회적·경제적 변화와 핵가족화 및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에 따른 여성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변화 등은 아동의 영양에도 많은 영향을 주며 아동의 결식, 영양결손, 영양방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김소라 : 2003).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이혼한 가정의 증가, 아동을 겨냥한 매체의 급증 등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학생 자신들이 음식을 스스로 선택하는 책임이 커지게 되므로 아동의 영양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양일선, 2002).

학령기는 식습관이 형성되고 고정화되는 중요한 시기이지만 학령기의 아동들은 자신의 건강과 영양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강의 중요성도 알지 못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윤훈경·한용봉, 1995).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 학부모 및

급식담당자 모두가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영양교육이 아동의 식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윤현숙 등, 2001 : 허은실 등, 2002 : 박정아 등, 2004 : 김창임 등, 2006). 강여화 등(2004)에 따르면 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영양교육의 효과성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영양교육방법은 대부분 가정통신문이나 담임선생님을 통한 간접방법을 활용하며 일부 직접상담, 음식과 관련된 홈페이지 운영, 가정안내문 발행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영양교육이 수행되었다(서어나 등, 1997 : 박정아 등, 2004 : 박남경, 2006).

미국에서는 1900년 이후부터 영양교육이 실시되면서 대부분 연방 정부 기관과 주정부의 부처 및 지역사회 내의 기관들이 학교와 연계되어 EFNEP(The Expanded Food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N(Team Nutrition) 등 체계적인 교육이 정책적으로 수행되고 있다(Burney and Haughton, 2002 : Elyse *et al.*, 2002 : Martha and Raidl, 2004).

그리고 대상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양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CDC(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서 주관하는 9-12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Powerful Bones. Powerful Girls*, USAD(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실시하는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Head Start 프로그램과(Sharon *et al.*, 200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MCHB(Maternal Child Health Bureau)는 자녀의 영양과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 검색과 판정, 상담, 영양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Jamie *et al.*, 2006). 학교에 기반을 둔 영양교육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대상 학습장과 web, CD-Rom을 통한 Nutrition Pathfinders(Daniel R, 2004),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한

Cooking Class와 화단 가꾸기 수업 등이 있고 영양교육의 다양한 접근방법에 대한 효과성이 증명되었다(Barbara J, 2005 : Heather and Sheri, 2005 : Herman and Janice, 2006) 그리고 Sharon Friel *et al.*(1999)의 조사에서 NEAPS(Nutrition Education at Primary School)프로그램의 효과평가에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은 아동의 식습관 변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국내의 경우 현행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영양교육내용의 목표와 내용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학년별 커리큘럼이나 교재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나 상담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권용경 등, 2006). 따라서 교육자 위주의 수동적 학습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자기 주도적인 참여 학습을 위한 다양한 영양교육방법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김창임 등, 2006).

유재련(1997)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학교나 교사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교사, 학부모, 학생이 교육의 세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모든 학교 교육 단계에서 교육의 성공 및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 협력은 중요하다고 보고하여 자녀의 발달적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에서 학부모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우태정(2006)의 연구에서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 74.7%, ‘아버지’ 18.7%순으로 나타났고, Stasch(1970) 등과 Brown(1967)의 연구에서 아동의 식습관 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에 의한 아동의 식습관 변화율은 70%이상이라고 강조하였다. 어머니는 가족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구성원이 섭취할 식품의 구입계획, 구매조리 등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식생활 태도와 식생활, 가치관은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의 영양 상태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하태열 등, 1995 : 이정숙·김갑순, 1999).

또, 아동들의 식품기호와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는 A Basedevant(1999)의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가족적 요인이 식이의 질이나 다양성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학부모의 영양에 대한 정보 습득 및 지식수준은 자녀의 식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가 식생활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도 식생활 습관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방법과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적다. 그러므로 아동의 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 부모의 교육도 필요 사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학교에서 자녀의 식생활 개선을 위해 부모를 학생과 함께 영양교육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 및 참여능력은 가족의 생활양식, 가족구성,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등에 의해 다르다고 보고되었다(Wagner J. L. *et al.*, 1992 : Shannon BM *et al.*, 1994 : P. Carolynet *al.*, 1998). 국내의 경우 학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영양교육 인식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어머니는 식생활관리자로서 자녀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파악할 때(이지은·정인경, 2005), 어머니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교육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한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식습관 및 영양지식의 수준에 따른 자녀와 학부모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는 향후 학교에서 영양교육 지침 및 활성화 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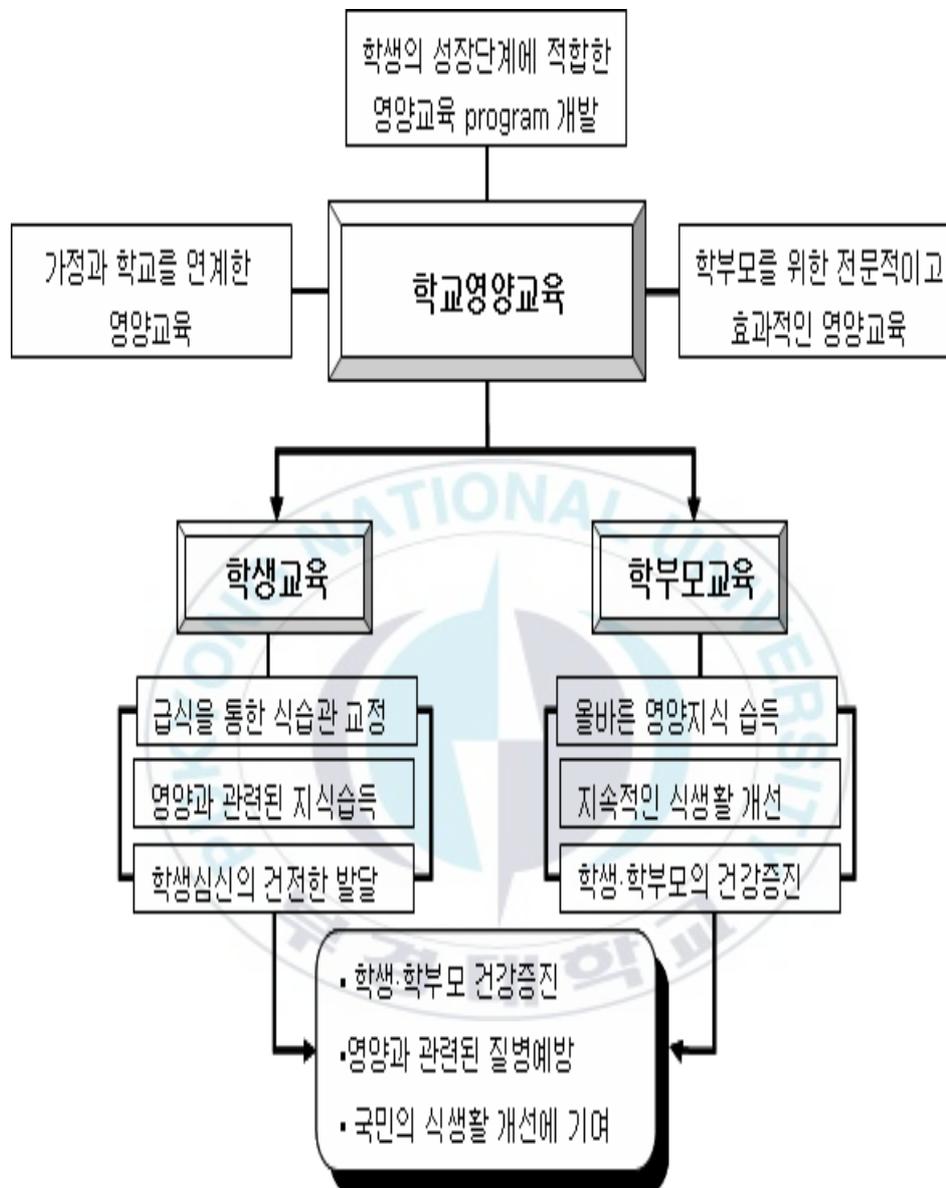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목적을 위한 가설 설정

본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a.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학교에서 아동의 영양교육 실시에 영향을 준다.

가설 1-b.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

가설 2.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에 영향을 준다.

가설 3-a.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는 학교에서 아동의 영양교육 실시에 영향을 준다.

가설 3-b.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는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

가설 4.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는 학교에서의 아동 영양교육 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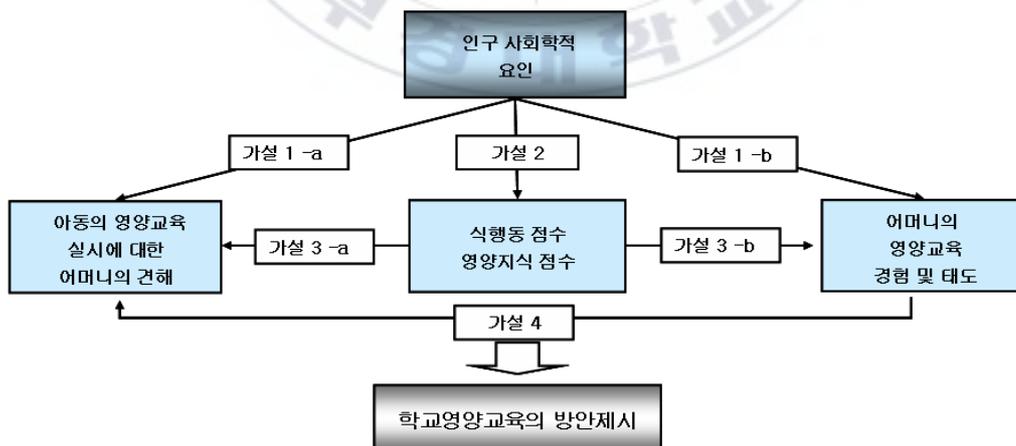


그림 2. 가설모형

3. 용어의 정의

가. 영양교육

아동들에게 영양·식품, 영양과 건강 및 좋은 식습관 등의 학습을 영양소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과 관련된 식품을 통해 가르치고자하는 교육을 말한다. 즉, 아동들에게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식생활에 관한 관심과 의욕을 높여서 학습한 지식과 기술을 식생활에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용케 하고, 스스로 식생활에서 행동에 옮겨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김창임 등, 2005).

나. 급지

학교의 등급인 A급지학교, B급지학교, C급지학교란 교동이 편리하고 교사들의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을 편이상 지칭한 용어이나 실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A, B, C급지 학교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사용되었다. (이승민, 1997)

- A급지 : 비교적 생활환경이 부유하고 부모의 교육관심도가 높은편
- B급지 : 비교적 생활환경이 중간정도이고 부모의 교육관심도가 보통인편
- C급지 : 비교적 생활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고 부모의 교육관심도가 낮은편

다. 식 행동

식 행동이란 각 개인의 행동양식과 연관되어져 내재하고 있는 모든 요인에 의해 표출되는 식생활과 관련된 행동으로(B.C. Schorr and D. Sanjur, 1972, R. G. Macneill, 1998 : 김정현, 1990)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이영민 등, 2005 : 배은영, 2006)의 식 행동 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라. 영양지식

영양지식이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하는 모든 현상에 대한 지식이다.(서정숙, 1999)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기남 · 이경신, 1996 : 이미숙 · 우미경, 1999 : 김경아 등, 1999 : 김경원 등, 2004)의 영양지식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초등학교 영양교육의 발전동향

우리나라에서의 영양교육의 시작은 6.25 동란이후 25년간 주한 CARE는 각 시·도에 어린이집을 개설하고 도시 저소득층 및 도서벽촌의 아동들을 위해 탁아사업을 운영하였는데, 이곳에서 15명의 영양사를 채용하여 매달 25일간 각 시·도에서 한사람씩을 배치하여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마을의 영양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서은나, 1997).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은 해방 후 보건교육 교과 내에서 교육되어져 오다가, 1963년 2차 교육과정 개정 시 보건교육이 체육교과로 통합되면서, 교육내용도 축소 분산되었다. 그 후 1981년 4차 교육과정 개편 때에 중·고등학교에서 가정교과로 바뀌면서 교양필수과목으로 지정되었고 초등학교에서는 여러 과목 내에서 분산되어 교육되어 졌다. 1997년 확정 고시된 현행 7차 교육과정상 영양교육은 초등학교 실과와 중등학교 기술·가정과 의 한 영역에 포함되어 있고, 체육이나 과학 등 다른 과목에서 영양과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을 간헐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학교교육에서는 영양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목표와 내용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이영숙·김영남, 2000)

우태정(2006)에 따르면 7차 교육과정 교과 내 과목별로 식생활 관련한 내용은 국어(20.8%)가 가장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체육과 실과는 18.1%로 같은 비율을 보였는데 체육의 경우 3학년의 '신체성장과 발달' 4학년의

경우 ‘질병과 환경’ 5학년과 6학년의 경우 ‘보건‘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 실과에서는 5학년의 ‘우리의 식사’, 6학년의 ‘일과 직업의 세계’, ‘간단한 음식 만들기’, ‘동물 기르기 단원’에서 식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 학년별로 볼 때는 5학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식생활 관련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하였다.

정진환·하광호(2002)의 연구에서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식생활 및 영양교육의 내용은 전 교과에 산재되어 있으며, 그러다보니 체계가 미흡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교사들은 영양교육의 내용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2.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시의 필요성

학령기의 영양은 성장기에 있는 아동에게 성장 촉진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고, 식습관이 형성·고정되는 시기로 성인이 되어서까지 균형 있는 식생활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Pipes. P, 1992 : 전숙경, 2005)

학령기는 신장, 심장, 간, 폐 등 내장기관과 각 조직이 커지고 기능이 충실해지며 골격이 발달하는 신체적 성장과 더불어, 사물을 판단하고 통합하는 인지능력의 성숙과 함께 자아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지며 사춘기에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의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장애는 신체적 성장발육 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지적발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은경, 2000 : 박미정, 2003)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의 증대와 생활수준의 변화에 따른 편의주의 식생활로 변해가고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가사 기

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김소라, 2003). 따라서 학령기의 아동 스스로가 간식을 구매하는 경우가 80%로 나타났으며, 김상인(1989)은 아동들이 식품을 선택할 때 가격, 맛, 양 등 비영양적 기준에서 식품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동이 영양지식 습득매체에 대한 구복자(2000) 조사결과 TV, 라디오, 교과서 외 도서라고 응답한 아동이 44.1%, 그 다음이 가족이나 친척 27.8%, 학교수업시간 26.7%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아동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식품 광고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잘못된 식습관을 형성하기도 한다(Signorielli and Lears, 1992).

학령기 아동의 식행동이나 식습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아침 결식율이 매우 높고, 편식, 과식, 식사속도가 매우 빠른 것, 가공식품 및 패스트푸드의 과잉 섭취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강윤주 : 1997 : 김순경, 2000 : 전세경, 2001 : 이영민, 2005 : 전숙경, 2005).

아침식사가 결식될 경우 다음 식사 때의 과식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기억력·집중력의 감소와 같은 학습문제,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 공격성,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고(Hinton, 1962 : 김숙희, 1999), 빠른 식사속도는 과식과 연결되고 과식은 비만으로 연결되어 비만으로 인한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및 고지혈증 등 만성퇴행성 질병 뿐 아니라 자존심 상실, 열등감, 우울, 심리적 불안감, 부정적 자기 신체상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며 나아가 인격형성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김숙희, 1999 : 이경애, 2004).

최도숙(2005), 김경아·신영현(1995)은 채소를 싫어하는 아동일수록 자기중심성과 공격성이 높았고, 과일이나 우유 및 유제품을 싫어할수록 공격성과 불안점수가 증가하다는 보고와 이윤주 등(2004)의 연구에서 편식하지 않는 아동의 안전성과 책임성의 점수가 편식아동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하였다. 이들의 선행연구를 살펴볼 때 올바른 식습관 교육과 영양교육

이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기에 병행되어야 할 주요한 교육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학령기에 영양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시기는 성장이 활발한 시기로 식생활로 인한 성장발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평생 동안 지속된다. 특히 식습관은 반복학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에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아동의 영양교육기회의 확대와 더불어 이를 위한 실천적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Winter *et al.*, 1999 : 최은희 외, 2005)

3. 어머니의 영양교육 필요성

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

한 집단의 영양 상태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연령,거주지역,교육정도,월수입,직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식품군별 섭취량은 총 식품섭취량과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이 소득계층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식물성 식품 중 당류, 과일류, 해조류, 유지류와 동물성 식품 중 육류와 어패류가 소득계층에 따라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또 식품의 섭취 가지 수도 소득계층별 차이를 보여 하위집단의 식품가지수가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었다(정희정, 1995 : 이정숙, 2006). 따라서 하위집단과 중하위집단에 대해서는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한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하며

중위집단, 중상위 집단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알맞은 균형 잡힌 식생활 영
위 할 수 있는 영양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가정의 식생활 뿐 아니라 부모의 자녀 지도태도에
영향을 준다. 심영대(1996)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자녀 교
육은 읍면 지역보다는 도시 지역이, 학력, 수입, 직업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
녀교육에 더 많이 참여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교육정도나 계층에 따라
교육지원활동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산층 학부모는 학부모들
의 다양한 자녀 교육을 하는 것에 비해 빈민지역은 교육비 부족, 부모의 지
적능력부족, 맞벌이로 인한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자녀를 직접 가르치거나
관심을 갖기 어렵다.(심미옥, 2003)

따라서, 부모의 직업, 교육수준 및 총수입에 따라서 가정에서의 식생활이
나 자녀에 대한 식습관 지도 및 태도, 영양지식 습득에 영향을 주므로 초등
학교 학생들에게 영양지식의 습득과 식습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사
회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적합하고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
시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어머니의 영양지식 · 식행동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

Land등(1969)은 영양교육은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태도와
식습관을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식행동을 유발시키는 동
기적 · 인식적 요소의 환경은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이라고 보았다. 학교에서
또래들 사이에서 영양지식을 습득하고 가정에서는 가족적 분위기 속에서
실질적으로 바람직한 식습관을 배운다면 가장 효과적인 영양교육이 가능할
것이다.(CA Vereecken *et al.*, 2005 : 우태정, 2006)

자녀가 어릴수록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고,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부모의 가정에서의 영양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 식생활 관리자인 어머니는 좋은 식습관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한다(정근백 등, 1995 : P. Carolyn *et al.*, 1998). 김정현 등(1992)의 연구에 따르면 자주 먹어본 식품을 더 자주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어려서 자주 접한 식품을 선호하게 된다고 하였다. 아동의 채소 기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을 통해 다양한 채소류를 아동들에게 자주 제공하여 채소류에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므로 가정에서 식습관 관리자로서의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경애(2004)의 연구에서 영양태도가 좋은 어머니들이 보통인 어머니들보다 가정 내 식습관 지도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영양지식이 매우 우수한 어머니들보다 영양지식이 낮은 어머니들이 가정 내에서 식습관 지도를 적게 하고 있었다. 영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은 영양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데도 적극적이고 자녀의 영양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식생활 및 영양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영양지식 수준이 높아질 때 식생활 관리능력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므로, 균형 있는 식사의 중요성, 영양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나 가정통신을 통한 어머니 영양교육도 아동의 영양상태 향상, 좋은 식습관 형성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이정숙, 2006).

학교에서의 학부모교육이란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기능보다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도록 의도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으로, 부모와 자녀를 모두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아동을 교육함에 있어 학교와 가정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취보더라도 학교에서의 학부모

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은 필요하다(성영혜 등 1993 : 신용주 등 1997 : 류재화, 2001).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 식생활개선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도 아동 및 가족의 바람직한 식생활 개선을 위한 학부모 영양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학교에서 적극 실시되어야 하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방법

초등학교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해 학부모의 견해 및 부모 영양교육에 태도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여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1개교 초등학교를 임의로 선정한 후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30부를 회수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부산지역의 어머니의 영양교육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의뢰하여 학교규모가 유사한 1개교를 지정하여 총 6개교를 표본으로 지정하여 초등학생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연구대상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께 연구의 목적과 조사의 방법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여 담임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가정으로 전달하여 어머니가 직접 기록하게 하는 자기기록방법을 이용하였다.

각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초등학교 1교당 120명, 총 72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676부가 회수 되었으며(회수율 : 93.9%), 이 중 성별이 남성이라고 응답된 경우와 일관성이 없거나 미기재된 응답이 있는 65부를 제외하고 총 611부(84.9%)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 기간

예비조사는 2006년 11월 20일~2006년 11월 23일에, 본 조사는 2006년 12월 5일~12월 12일에 진행되었다.

3. 조사도구

가.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으로 대상 학부모의 나이, 성별, 학력, 어머니 직업의 유·무, 가족의 월소득,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급지를 조사하였다.

나. 자녀의 영양교육실시 조사도구

자녀의 영양교육 정기적 수업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 실시시기,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배정시간, 영양교육실시 횟수, 영양교육 담당자,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의 필요정도,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 이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학교에서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에 관한 항목은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예절, 편식교정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측정척도는 이유에 대해 1, 2, 3 ... 6의 순위를 적도록 하였다.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는 올바른 식습관, 체중관리, 영양소의 역할과 기초식품군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우중요하다' 5점, '중요하다' 4점, '보통이다' 3점, '중요

하지 않다' 2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태도 조사도구

부모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 학부모의 자녀 식생활 지도 빈도, 학부모의 영양교육 요구, 영양지식 정보원을 조사하였고,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에 관한 항목은 유인물, 정기적 집단 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학교홈페이지, 급식 게시판, e-mail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척도는 '매우 효과적이다' 5점, '효과적이다' 4점, '보통이다' 3점, '효과적이지 않다' 2점,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1점으로 하였다.

라. 어머니의 식행동 조사도구

식행동은 선행연구(이민영 등, 2005 : 배은영, 2006)식품 선택 시 기준 사항과 식사의 규칙성, 과식, 결식, 편식, 외식, 간식 등 전반적인 식행동에 대한 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항목별로 1주일에 '0-2일', '3-5일', '6-7일' 중 얼마나 자주 각각의 식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빈도를 조사하였다. 개인의 식행동 횟수는 긍정적 문항(1번~12번)의 경우 '0-2일'에 1점, '3-5일'에 2점, '6-7일'에 3점을 부여하고 부정적인 문항(13번-18번)은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총 54점을 만점으로 계산하였다. 식행동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섭취의 충족도와 식행동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식행동 점수의 분류는 평균±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식행동 점수가 18-36이면 '낮음', 37-42점이면 '보통', 43-48이면 '높음', 49-54점이면 '매우 높음'의 4군으로

분류하였다.

마. 어머니의 영양지식 조사도구

대상자의 영양지식에 관한 항목은 이미 개발된 설문지(김기남·이경신, 1996 : 이미숙·우미경, 1999 : 김경아, 1999 : 김경원 등, 2004)를 이용하여 영양소의 역할(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과 무기질), 부족증, 함유식품, 기타내용(콜레스테롤, 섬유소, 가공식품)에 관한 지식을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영양지식의 각 문항에 관해 '맞다', '틀렸다', '모른다'중 선택하여 답하게 하였다. 정답인 경우 1점을 부여하여 총 20점을 만점으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영양지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영양지식점수는 평균±편차를 기준으로 하여 총점이 0-12점이면 '낮음', 13-17점이면 '보통', 18-20점이면 '높음'의 3군으로 분류하였다.

<표 1>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변인/하위요인	문항수	척도
일반적 특성	학교 급지	6	명목척도
	나이		
	성별		
	학력		
	직업유무		
	가정의 월소득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성 및 교육방안	학교에서 정기적 영양교육 실시여부	1	명목척도
	영양교육 실시시기	1	명목척도
	영양교육 실시횟수	1	명목척도
	영양교육 실시시간	1	명목척도
	영양교육 담당자	1	명목척도
	학교에서 영양교육 필요성	1	Likert 척도
	영양교육 필요이유	6	Likert 척도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성	9	Likert 척도
어머니의 영양교육경험 및 실태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1	명목척도
	자녀의 식행활 지도 빈도	1	명목척도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	2	명목척도
	영양지식의 정보원	1	Likert 척도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영양정보제공의 효과	5	Likert 척도
	식행동 측정 항목	18	명목척도
	영양지식 측정 항목	20	명목척도
Total		75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내용별로 사용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의 일반사항은 빈도와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의 차이에 따른 학교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시기, 시간, 영양교육 담당자 분석에는 χ^2 -test를 사용하였고,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정도와 이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의 분석에는 oneway ANOVA(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의 차이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 영양요구 분석에는 χ^2 -test를 사용하였고, 영양교육 방법에 대한 효과의 인식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3)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의 점수 비교에는 oneway ANOVA, t-test를 이용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에는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이용하였다.

4)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의 차이에 따른 학교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 시기, 시간, 영양교육 담당

자 분석에는 χ^2 -test을 사용하였고,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정도와 이유,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의 분석에는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2>에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급지별 분포는 A급지 35.2%, B급지 47.0%, C급지 17.8%를 차지하고, A급지에 해당하는 학교는 서부교육청(17.0%)과 남부교육청(18.2%), B급지는 북부교육청(17.0%), 동부교육청(15.1%), 해운대교육청(14.9%), C급지는 동래교육청(17.8%)에 소속된 학교로 채택되었다.

연령은 만35세 이하 16.6%, 만36-40세 57.5%, 만41-45세 18.6%, 만46세 이상 7.3%로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30대 후반에 분포하고 있었고 학력은 고졸이하가 61.4%로 가장 높았고, 대졸이상은 21.4%, 전문대졸은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이 95.17%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질문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라서 직업이 있는 어머니 55.3%, 직업이 없는 어머니 44.7%이고, 가정의 월소득은 200만원 미만 23.0%, 200-300만원 미만 41.3%, 300-400만원 미만 22.8%, 400만원 이상 14.9%로 우리나라 30-40대 인구의 가정의 월소득 평균금액인 264만원이므로 조사대상자의 소득과 분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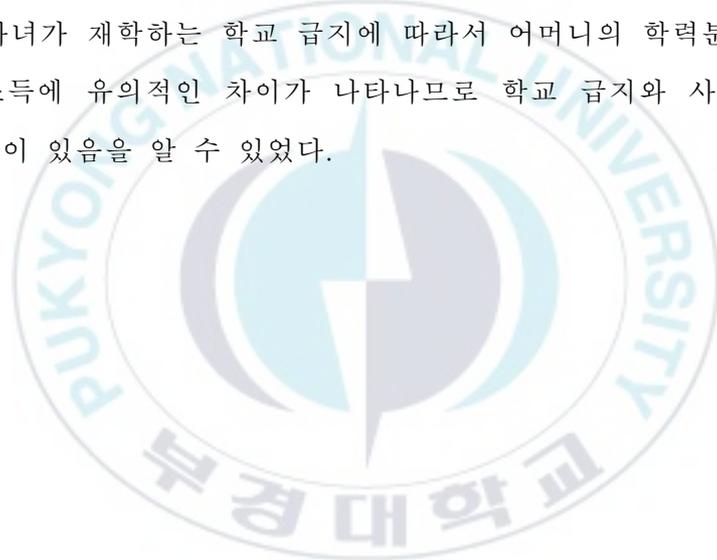
<표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변인	하위요인	N	%	
급지/지역	A 급지	서부교육청	104	17.0
		남부교육청	111	18.2
			215	35.2
	B 급지	북부교육청	104	17.0
		동부교육청	92	15.1
		해운대교육청	91	14.9
			287	47.0
	C 급지	동래교육청	109	17.8
			109	17.8
	Total		611	100
연령	>35	97	16.6	
	36-40	337	57.5	
	41-45	109	18.6	
	>46	43	7.3	
	Total	586	100	
성별	여성	611	95.17	
	남성	31	4.83	
	Total	642	100	
학력	고졸이하	367	61.4	
	전문대졸	103	17.2	
	대졸이상	128	21.4	
	Total	598	100	
어머니의 직업 유무	있다	331	55.3	
	없다	268	44.7	
	Total	599	100	
가정의 월소득 (천 원)	<200	137	23.0	
	≤200- <300	246	41.3	
	≤300- <400	136	22.8	
	≥400	77	12.9	
	Total	596	100	

<표 3>에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급지에 따른 가정의 월소득과 어머니의 학력을 제시하였다. 학교급지의 차이에 따른 월소득은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냈고, A급지는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B급지는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C급지는 200만원 미만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지의 차이에 따른 학부모의 학력은 유의적인 차이($p<0.001$)를 나타냈고, A급지는 전문대졸, 대졸이상, B급지와 C급지에서는 고졸이하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급지에 따라서 어머니의 학력분포 비율과 가정의 월소득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므로 학교 급지와 사회·경제적 환경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학교급지에 따른 가정의 월소득과 어머니의 학력분포

변인	가정의 월소득(천원)				학력			N(%)
	<200	200≤~<300	300≤~<400	≥400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이상	
	A 급지	74(34.7)	35(16.7)	#54(25.7)	#48(22.9)	91(42.9)	#46(21.9)	#74(35.2)
B 급지	#134(47.8)	#65(23.4)	60(21.2)	21(7.6)	#192(68.0)	46(16.0)	45(16.0)	
C 급지	#61(58.1)	14(13.3)	22(21.0)	8(7.6)	#84(80.8)	11(10.6)	9(8.7)	
χ^2	41.045***				56.201***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2.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 영양교육 인식

<표 4>는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결과를 제시하였다.

학교에서의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의 실시여부에서 전체 응답자의 20.5%가 '영양교육을 받고 있다', 21.5%가 '영양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의 유사한 비율로 응답되었고, 58.4%가 '모르겠다'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어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은 낮은 것으로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적인 차이($p < 0.001$)를 보였고,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는 '실시한다'와 '모르겠다',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실시하지 않는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지, 연령, 학력,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학교에서의 자녀에 대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의 실시여부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 시기에 대해 전체응답자 중의 49.9%가 취학전, 39.1%가 초등학교 저학년, 11.0%가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나타나 자녀의 식습관이 형성되기 전인 어릴 때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의 적절한 영양교육 시기는 저학년 때의 체격이 고학년 때까지 유지되기 때문에 저학년 때부터 실시되어야 한다고 김은경 등(2001)은 보고하였다. 최은희(2002)의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양교육 실시 시기는 취학전이 59.1%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는 40.1%로 나타났고, 윤현숙 등(2001)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교육 실시시기가 유치원 72.1%, 초등학교 22.5%, 중학교 5.4%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어머니의 학력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의 실시시기는 유의적인 차이

($p < 0.01$)를 보였고, 고졸이하의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전문대졸과 대졸의 경우에는 취학 전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교 급지, 연령,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영양교육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횟수에서, 전체응답자 38.1%가 한 달에 1회 이하 실시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 34.4%는 한 달에 2회 실시, 27.2% 주 1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초애(1995)의 연구에서, 학부모는 영양교육 시간을 주에 1시간 정도로 정규화 해야 한다고 보고 하였다. 신은경 등(2006)은 영양교육 실시횟수에 대해 영양사와 교장은 일주일에 1-2시간 정도 할애가능에 대해 영양사는 76.8%, 교장은 74.5%이었으나, 교사는 50.6%가 한 달에 1시간이 적당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차이를 나타낸다.

학력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횟수는 유의적인 차이($p < 0.05$)를 보였는데, 고졸이하의 경우에 주 1회 이상 실시, 전문대졸의 경우는 한 달에 1회 이하 실시, 대졸이상의 경우에는 한 달에 2회 실시, 한 달에 1회 실시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는데($p < 0.05$),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 주 1회 이상 실시,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 1달에 1회 미만 실시의 항목이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 가정 내에서 식습관을 지도할 시간적 여유와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더 자주 지도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5>에 인구사회적 요인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영양교육 담당자를 제시하였다. 응답자의 49.6%가 체육이나 실과와 같은 관련교과를 통한 수업을 원하고, 22.6%는 학교급식시간에 학교급식과 연계한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인 영양상담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은 낮게 나타났다. 윤현숙(2000)의 연구에서 경남

지역의 영양사들은 교과 내에서 48.6%, 일상생활에서 31.8%, 특별활동시간 11.4%, 급식시간 8.2%로 나타나 교과 내에서 수업은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나, 급식시간을 통한 교육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학력의 차이에 따라서, 고졸이하는 특별활동, 급식시간, 전문대졸의 경우 관련교과, 대졸이상의 경우는 관련교과와 영양상담이 항목이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소득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특별활동, 급식시간, 200만원-3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특별활동, 급식시간, 재량활동, 300-4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관련교과, 재량활동, 학교방송, 400만원 이상일 경우에 관련교과, 학교방송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교급지, 연령,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실시시간은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녀의 영양교육담당자는 총 응답자의 55.4%가 학교영양사, 16.3%가 외부 전문영양강사, 13.8%가 보건교사, 11.7%가 담임교사, 2.8%가 부모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은희(2002)의 연구에서, 조사대상 학부모는 영양교육 담당자로 학교급식 영양사 70.6%, 담임교사 19.1%, 보건교사 6.4%, 학부모 3.9%로 전문가에 의해 지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보다 학교영양사에 대한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는 영양전문가인 학교영양사 또는 외부의 전문영양강사에게 교육받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학부모 지도보다는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담당해주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핵가족화와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생활스타일이 다양해지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학교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담당자는 유의적인 차이($p < 0.05$)를 타내었는데, A급지는 외부 전문영양강사, B급지는 담임교사, 학교영양사, 보건교사, C급지는 담임교사, 학교영양사, 학부모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경우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어머니의 직업이 없는 경우는 학교영양사, 외부 전문 영양강사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가정의 월 소득에 따른 차이는 영양교육 담당자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실시횟수								
		정기적 영양교육실시 여부			영양교육 실시시기			영양교육 실시횟수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취학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1회/주 이상	2회/한달	>1회/한달 이하
급지	A 급지	#52(24.3)	44(20.6)	119(55.1)	#108(505)	#88(41.1)	19(8.4)	56(26.3)	74(34.1)	#85(39.7)
	B 급지	49(17.2)	#63(22.1)	#175(60.7)	140(49.1)	112(38.6)	#13(11.9)	#81(27.7)	96(34.0)	#110(38.2)
	C 급지	#24(22.0)	22(20.2)	#63(57.8)	#57(52.3)	39(35.8)	13(11.9)	#31(28.4)	#40(36.7)	38(34.9)
	χ^2		4.011			2.454			0.837	
연령	<35	#20(20.61)	#24(24.7)	53(54.6)	47(48.5)	#41(42.3)	9(9.3)	22(22.7)	#35(36.1)	#40(41.2)
	36~40	#69(20.5)	64(19.0)	#204(60.5)	166(49.3)	#131(38.9)	#40(11.9)	#94(27.9)	112(33.2)	#131(38.9)
	41~45	20(18.3)	22(20.2)	#67(61.5)	#56(51.4)	43(39.4)	10(9.2)	#34(31.2)	37(33.9)	38(34.9)
	>46	#9(20.9)	#13(30.2)	21(48.8)	#25(58.1)	15(34.9)	3(7.0)	11(25.6)	#16(37.2)	16(37.2)
	χ^2		4.606			2.552			2.340	
학력	고졸이하	71(19.3)	#80(21.8)	216(58.9)	164(44.7)	#157(42.8)	#46(12.5)	#115(31.3)	117(31.9)	135(36.8)
	전문대졸	#22(21.4)	#24(23.3)	57(55.3)	#55(53.4)	39(37.9)	9(8.7)	24(23.3)	33(32.0)	#46(44.7)
	대졸이상	#26(20.3)	23(18.0)	#79(61.7)	#81(63.3)	39(30.5)	8(6.3)	25(19.5)	#53(41.4)	#50(39.1)
	χ^2		1.477			14.463*			9.563*	
어머니 직업	있다	#81(24.5)	51(15.4)	#199(60.1)	#167(50.5)	128(38.7)	36(10.9)	#98(29.6)	#124(37.5)	109(32.9)
	없다	40(14.9)	#77(28.7)	151(56.3)	131(48.9)	#107(39.9)	#30(11.2)	64(23.9)	85(31.7)	#119(44.4)
	χ^2		19.345***			0.147			8.318*	
월소득	<200	53(19.7)	52(19.3)	#164(61.0)	126(46.8)	#108(40.1)	#35(13.0)	#77(28.6)	92(34.2)	100(37.2)
	≤200~<300	#32(28.1)	22(19.3)	60(52.6)	57(50.0)	46(40.4)	11(9.6)	#32(28.1)	39(34.2)	43(37.7)
	≤300~<400	#29(21.3)	#36(26.5)	71(52.2)	#79(58.1)	47(34.6)	10(7.4)	35(25.7)	#51(37.5)	50(36.8)
	≥400	10(13.0)	16(20.8)	#51(66.2)	38(49.4)	#33(42.9)	99(7.7)	16(20.8)	24(31.2)	#37(48.1)
	χ^2		10.420			6.944			4.175	
Total		122(20.5)	129(21.5)	357(58.4)	205(49.9)	239(39.1)	67(11.0)	168(27.5)	210(34.4)	233(38.1)

* p<0.05, ** p<0.01,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5>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담당자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실시시간					영양교육 담당자					N(%)
		관련교과	특별활동	급식시간	계량활동	학교방송	영양상담	담임교사	학교영양사	보건교사	학부모	
급지	A 급지	#115(53.3)	#21(9.8)	46(21.5)	20(9.3)	#10(4.7)	#3(1.4)	21(9.9)	116(54.0)	29(13.6)	6(2.8)	#42(19.7)
	B 급지	135(46.7)	21(7.4)	64(22.5)	#33(11.6)	#30(10.5)	#4(1.4)	#39(13.8)	#160(56.2)	#40(14.1)	5(1.8)	41(14.1)
	C 급지	#53(49.5)	#11(10.3)	#27(25.2)	5(4.7)	#10(9.3)	1(0.9)	#11(10.2)	#60(55.6)	15(13.9)	#6(5.6)	16(14.8)
	χ^2			12.036						12.810*		
연령	<35	#54(55.7)	6(6.2)	18(18.6)	10(10.3)	6(6.2)	#3(3.1)	8(8.3)	#55(57.3)	10(10.4)	#3(3.1)	#20(20.8)
	36~40	169(50.3)	#27(8.0)	#77(22.9)	32(9.5)	#26(7.7)	5(1.5)	35(10.4)	184(54.9)	#56(16.7)	8(2.4)	52(15.5)
	41~45	48(44.4)	7(6.5)	#29(26.9)	#13(12.0)	#11(10.2)	0(0)	#18(16.5)	59(54.1)	14(12.8)	2(1.8)	16(14.7)
	>46	#24(55.8)	#5(11.6)	9(20.9)	3(7.0)	2(4.7)	0(0)	#7(16.7)	#25(59.5)	1(2.4)	#2(4.8)	#7(16.7)
χ^2			11.369						14.148			
학력	고졸이하	168(45.9)	#37(10.1)	#91(24.9)	35(9.6)	31(8.5)	4(1.1)	#46(12.6)	200(54.8)	49(13.4)	#10(2.7)	60(16.4)
	전문대졸	#65(63.1)	5(4.9)	19(18.4)	5(4.9)	8(7.8)	1(1.0)	7(6.9)	54(53.5)	#19(18.8)	#4(4.0)	#17(16.8)
	대졸이상	#66(52.0)	7(5.5)	24(18.9)	17(13.4)	10(7.9)	#3(2.4)	#17(13.3)	#74(57.8)	15(11.7)	1(0.8)	21(16.4)
χ^2			17.043						7.371			
어머니직업	있다	#164(49.8)	#30(9.1)	#74(22.5)	30(9.1)	#28(8.5)	3(0.9)	#50(15.2)	167(50.8)	#51(15.5)	#11(3.3)	50(15.2)
	없다	133(49.6)	21(7.8)	60(22.4)	#27(10.1)	22(8.2)	5(1.9)	20(7.5)	#164(61.7)	33(12.4)	4(1.5)	#45(16.9)
χ^2			1.447						13.755*			
월소득	<200	128(47.6)	#29(10.8)	#69(25.7)	24(8.9)	17(6.3)	2(0.7)	25(9.3)	148(55.2)	#41(15.3)	13(4.9)	41(15.3)
	≤200~<300	56(49.6)	#10(8.8)	#27(23.9)	#11(9.7)	7(6.2)	#2(1.8)	#16(14.0)	62(54.4)	14(12.3)	3(2.6)	#19(16.7)
	≤300~<400	#73(54.1)	8(5.9)	20(14.8)	#17(12.6)	#16(11.9)	1(0.7)	#16(11.9)	74(55.2)	#20(14.9)	1(0.7)	#23(17.2)
	≥400	#41(53.2)	3(3.9)	17(22.1)	5(6.5)	#9(11.7)	2(2.6)	#10(13.2)	#44(57.9)	7(9.2)	0(0)	#15(19.7)
χ^2			19.940						12.685			
Total		303(49.6)	53(8.8)	137(22.6)	58(9.5)	50(8.2)	8(1.3)	71(11.7)	336(55.4)	84(13.8)	17(2.8)	99(16.3)

* p<0.05, ** p<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6>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정도 및 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자녀 영양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점수에서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점수는 4.53점/6.00점으로 나타났다. 학교 급지의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영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A급지가 4.58점으로 B급지의 4.50점 C급지의 4.50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5세 이하에서는 4.48점, 36-40세는 4.54점, 41-45세는 4.56점, 46세 이상은 4.56점으로 연령이 높은 경우에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또,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는 대졸이상 4.58점, 전문대졸 4.57점, 고졸이하 4.49점이었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가정의 월 소득에 따라서는 300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어머니보다 3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가진 어머니의 경우에 영양교육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에서, 적절한 성장발육은 5.33점, 편식교정은 3.81점, 질병예방 3.71점, 식사예절 3.69점, 비만아동지도 2.54점, 식품과 영양지식은 2.08점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보다는 바른 식생활을 이해하고, 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행동변화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육을 실시 이유 항목 중 ‘적절한 성장발육’은 학력 차이에 따라서 고졸이하가 전문대졸, 대졸이상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교 급지, 연령, 직업유무, 가정의 월소득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편식교정’은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5세 미만이 46세 이상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가정의 월소득에서는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소득집단보다 200만원 미만의 소득집단에서 높게 나타나

고,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이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급지,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만아동지도’는 학교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A급지가 B급지와 C급지보다 유의적($p<0.05$)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연령에 따라 46세 이상의 어머니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의 경우가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경우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와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국회교육위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의 2005년도에 전국 190개 초등학교 5~6학년 1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만 관련 조사결과, 비만이 아닌 학생 중 4.1%만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고도비만(표준체중보다 50%이상 초과) 학생 중 10.5%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만이 아닌 학생의 경우 고졸 이하 아버지와 어머니 비율은 36%와 50%였는데 반해 고도비만의 경우 48.5%와 58.7%로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직업유무와 교육정도, 경제력이 초등학교 자녀의 비만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여, 비만발생은 사회적·경제적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뒷받침해준다(Story M, Alton I., 1990 : 박미아 등, 1998 : 전삼녀·노희경, 1998).

‘영양지식 습득’은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200-300만원 미만에서 유의적($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교 급지,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식사예절’과 ‘질병예방’은 급지,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교육의 중요도는 ‘올바른 식습관’은 4.56점, ‘안전한 식품섭취’는 4.47점, ‘건강·질병문제’는 4.40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문제’는 4.36점,

‘건강한 체중관리’는 4.22점, ‘식품선택과 섭취’는 4.29점, ‘식사예절’은 4.29점, ‘영양소의 역할 및 기초식품군’은 4.07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모든 항목의 평균 4.00점/5.00점 이상으로 나타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박남경(2006)의 영양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올바른 식습관’이 4.29점, ‘건강·성장 및 질병문제’가 4.28점,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및 기초식품군’이 4.28점, ‘올바른 식품선택과 섭취’는 4.25점, ‘식사예절’이 4.19점, 식품낭비와 환경문제가 4.13점, ‘균형 잡힌 식사’가 4.12점 순으로 나타나 본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 학교 영양사와 학부모의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올바른 식습관’ 교육 중요도에서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A급지가 B급지, C급지보다 유의적($p < 0.001$)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고, 학력의 차이에 따라 고졸이하의 경우보다 전문대졸, 대졸이상의 경우에서 유의적($p < 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연령,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강한 체중관리’와 ‘건강과 질병’, ‘환경문제와 음식물 쓰레기’ 교육의 중요도에서 급지,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 유무, 월소득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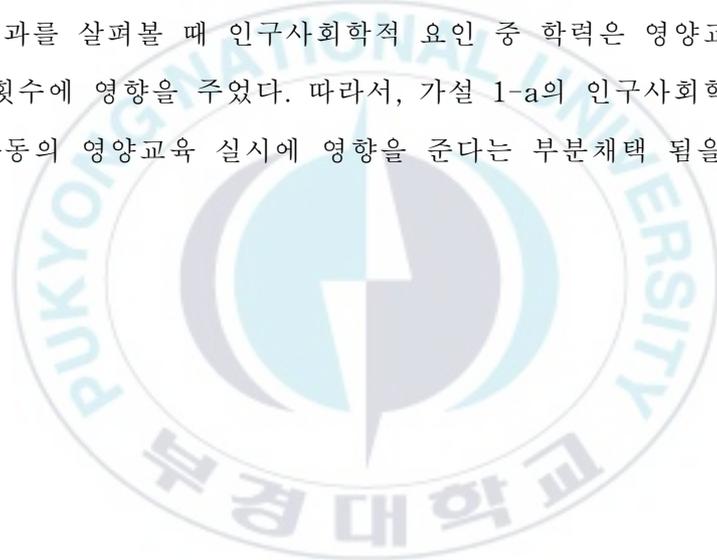
‘영양소의 역할·기초식품군’과 ‘전통식문화’ 교육의 중요도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46세 이상의 경우가 45세 이하의 집단들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급지, 학력,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식품선택과 섭취’ 교육의 중요도에서,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대졸이상의 경우가 고졸이하와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취업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직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더 높은 점수 나타나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가 직접 간식을 선택하여 섭취하는 빈도가 더 많을 것이므로 식품선택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학군, 연령, 가정의 월소득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우태정(2006)의 연구에서 학부모, 학교장, 교사, 영양사들은 영양교육의 내용으로 균형 잡힌 식품섭취, 편식교정, 규칙적인 식사, 건강에 유익한 식품선택 요령 등의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학력은 영양교육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가설 1-a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학교에서 아동의 영양교육 실시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됨을 알 수 있다.



<표 6>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영양교육 필요정도와 필요 이유 및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

N(%)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¹⁾ 필요정도	영양교육 필요이유 ²⁾						영양교육내용의 중요성 ³⁾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예절	편식교정	비만학생 지도	질병예방	영양지식 습득	올바른 식습관	체중관리	건강, 질병문제	영양소의 역할 기초식품군	안전한 식품섭취	식품선택 과 섭취	식사예절	전통식 문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급지	A 급지	4.58±0.52	5.44±0.96	3.58±1.50	3.81±1.27	2.34±1.19 ^{ab}	3.84±1.41	1.99±1.32	4.69±0.47 ^{ab}	4.25±0.70	4.43±0.72	4.13±0.72	4.51±0.56	4.37±0.65	4.35±0.62	4.14±0.69	4.38±0.65
	B 급지	4.50±0.62	5.24±1.25	3.74±1.52	3.91±1.35	2.61±1.37 ^b	3.60±1.39	2.06±1.43	4.50±0.54 ^b	4.21±0.66	4.38±0.63	4.07±0.70	4.44±0.59	4.27±0.61	4.29±0.61	4.01±0.72	4.31±0.68
	C 급지	4.50±0.74	5.34±1.12	3.73±1.52	3.54±1.44	2.74±1.43 ^b	3.71±1.49	2.26±1.49	4.47±0.63 ^b	4.17±0.70	4.40±0.64	3.97±0.73	4.46±0.55	4.18±0.70	4.26±0.67	4.01±0.78	4.42±0.55
	F value	1.378	2.014	0.761	2.516	4.431*	1.682	2.249	9.792***	0.394	0.399	1.744	1.065	2.886	2.222	2.170	1.724
연령	<35	4.48±0.61	5.18±1.26	3.80±1.54	3.70±1.22 ^{ab}	2.46±1.29 ^a	3.87±1.50	2.11±1.49	4.53±0.56 ⁱ	4.23±0.67	4.44±0.60	4.15±0.74 ^d	4.48±0.56	4.33±0.68	4.27±0.60	4.10±0.74 ^d	4.42±0.63
	36~40	4.54±0.61	5.39±1.10	3.59±1.50	3.94±1.33 ^b	2.46±1.28 ^a	3.69±1.38	2.06±1.36	4.57±0.51	4.22±0.67	4.40±0.67	4.09±0.68 ^b	4.46±0.58	4.30±0.62	4.31±0.59	4.09±0.69 ^d	4.36±0.60
	41~45	4.56±0.62	5.34±1.10	3.75±1.45	3.71±1.37 ^{ab}	2.46±1.35 ^a	3.70±1.44	2.16±1.47	4.64±0.59	4.29±0.68	4.43±0.63	4.12±0.69 ^b	4.52±0.56	4.32±0.59	4.32±0.61	4.07±0.71 ^b	4.40±0.61
	>46	4.56±0.50	5.14±1.19	3.98±1.67	3.40±1.55 ^b	3.09±1.38 ^b	3.65±1.45	2.09±1.57	4.51±0.55	4.12±0.82	4.42±0.79	3.74±0.88 ^e	4.38±0.58	4.12±0.79	4.26±0.62	3.67±0.78 ^e	4.33±0.68
	F value	0.325	1.183	1.173	2.803*	3.119*	0.422	0.128	0.195	0.726	0.618	3.728*	0.647	1.305	0.292	4.518*	0.392
학력	고졸이하	4.49±0.64	5.21±1.20 ^a	3.72±1.56	3.80±1.40	2.68±1.37 ^b	3.68±1.45	2.12±1.46	4.50±0.57 ^a	4.22±0.67	4.39±0.64	4.04±0.71	4.45±0.58	4.24±0.66 ^a	4.28±0.60	4.03±0.75	4.35±0.64
	전문대졸	4.57±0.61	5.60±0.98 ^b	3.65±1.44	3.76±1.21	2.25±1.15 ^a	3.79±1.31	2.05±1.36	4.63±0.49 ^b	4.27±0.70	4.45±0.69	4.15±0.62	4.51±0.56	4.33±0.62 ^b	4.24±0.64	4.02±0.68	4.37±0.63
	대졸이상	4.58±0.53	5.48±0.95 ^b	3.67±1.42	3.93±1.26	2.28±1.17 ^a	3.68±1.41	1.96±1.30	4.66±0.48 ^b	4.22±0.61	4.40±0.65	4.16±0.69	4.48±0.56	4.40±0.59 ^b	4.39±0.56	4.13±0.65	4.36±0.66
	F value	1.157	5.733***	0.089	0.531	6.804**	0.271	0.639	5.071**	0.297	0.276	2.003	0.339	3.308*	1.970	0.971	0.067
어머니 직업	있다	4.57±0.60	5.32±1.18	3.62±1.47	3.82±1.39	2.57±1.38	3.72±1.41	2.14±1.45	4.57±0.53	4.22±0.68	4.40±0.66	4.10±0.75	4.45±0.57	4.35±0.63	4.30±0.62	4.10±0.70	4.38±0.64
	없다	4.48±0.61	5.37±1.07	3.76±1.53	3.82±1.26	2.47±1.24	3.69±1.43	1.98±1.36	4.56±0.56	4.22±0.68	4.39±0.67	4.05±0.66	4.48±0.57	4.22±0.65	4.29±0.59	4.01±0.74	4.32±0.65
	F value	1.885	-0.445	-1.147	-0.014	0.914	0.301	1.376	0.339	-0.017	0.150	0.910	-0.668	2.340*	0.090	1.455	1.133
	월소득	<200	4.52±0.63	5.20±1.26	3.69±1.60	3.74±1.39 ^{ab}	2.68±1.40	3.80±1.43	2.16±1.43 ^b	4.52±0.54	4.24±0.70	4.43±0.69	4.08±0.77	4.50±0.58	4.24±0.66	4.26±0.62	4.05±0.74
≤200~<300		4.51±0.64	5.33±1.21	3.79±1.44	4.08±1.27 ^b	2.63±1.14	3.50±1.43	1.67±1.11 ^a	4.61±0.51	4.23±0.69	4.43±0.61	4.05±0.65	4.51±0.60	4.41±0.61	4.31±0.65	4.09±0.71	4.36±0.61
≤300~<400		4.55±0.58	5.46±0.89	3.67±1.39	3.97±1.32 ^b	2.35±1.26	3.65±1.40	2.08±1.49 ^b	4.60±0.49	4.14±0.65	4.36±0.66	4.05±0.65	4.42±0.54	4.25±0.63	4.30±0.55	3.98±0.72	4.32±0.64
≥400		4.57±0.55	5.53±0.93	3.50±1.50	3.43±1.25 ^b	2.46±1.43	3.75±1.41	2.33±1.51 ^b	4.66±0.50	4.34±0.60	4.38±0.67	4.17±0.70	4.42±0.57	4.39±0.69	4.36±0.63	4.16±0.67	4.39±0.65
F value		0.238	2.388	0.514	4.131***	1.942	1.126	4.014***	1.758	1.573	0.416	0.570	0.898	2.591	0.530	1.018	0.299
Total	4.53±0.61	5.33±1.13	3.69±1.51	3.81±1.34	2.54±1.33	3.71±1.42	2.08±1.41	4.56±0.54	4.22±0.68	4.40±0.66	4.07±0.71	4.47±0.57	4.29±0.64	4.29±0.61	4.05±0.72	4.36±0.64	

측정척도 : ¹⁾ 필요정도 :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매우 필요하다), ²⁾ 필요이유 : 6점(1순위)~1점(6순위) ³⁾ 중요성 :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

⁴⁾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p<0.05, **p<0.01 ***p<0.001

3.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표 7>에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와 가정에서 영양교육 태도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의 유무는 전체 총 응답자 중 ‘경험 있다’ 49.3%, ‘경험 없다’ 50.7%로 나타났다. 전국 중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가 영양교육 경험이 있다 20.2%, 없다 78.9%의 비율로 나타났고(하태열, 1995), 부산시내의 학부모의 대상의 조사에서 유경험이 25.2%, 무경험이 74.8%로 응답되어 교육받은 부모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이정숙, 2006).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경험 유무는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A급지는 ‘경험 있다’, B급지와 C급지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나타냈는데, 35세 이하에서는 ‘경험 없다’, 36-40세와 41-45세에서 ‘경험 있다’, 46세 이상에서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학력의 차이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고졸이하에서는 ‘경험 없다’, 전문대졸과 고졸이하 에서는 ‘경험 있다’가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 직업의 유무의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p < 0.05$)를 보였는데,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경험 있다’, 직업이 없는 경우에는 ‘경험 없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의 월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p < 0.01$)를 보였는데, 2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경험 없다’,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경험있다’가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정숙(2006)에 따르면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고소득층이 41.4%로 중소득층 17.4%과 저소득층 16.3%에 비해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에게 식생활지도 빈도는 ‘항상 한다’ 33.2%, ‘가끔 한다’ 59.1%로 나타났고, ‘거의 실시하지 않는다’는 6.7%로 그쳐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영양교육을 규칙적이지는 않지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전혜인(2006)의 연구에서는 영양교육을 ‘자주 한다’(39.4%), ‘가끔 한다’(56.9%), ‘하지 않는다’(3.7%)로 보고하였고,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우태정(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67.7%가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32.3%는 밥상머리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이경애(200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약 1/3정도만이 가정에서 식습관 지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약 10%정도는 조금 또는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급지의 차이에 따라서 자녀 식생활 지도 빈도는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A급지는 ‘항상 한다’, ‘가끔 한다’, B급지와 C급지는 ‘가끔 한다’, ‘거의하지 않는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 학력, 어머니의 직업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에서 학교에서 영양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어머니 전체 86.4%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으며, 급지,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은희(2002)의 초등학교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83.1%가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했고, 우태정(2006)의 연구에 따르면 학부모 대상 영양교육을 실시하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52.5%로 보고하였다.

허은실 등(2003)의 연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영양교육 경험을 가진 영양사는 34.3%이었고, 구재옥(1999)의 연구에서는 35.7%로 나타났으나, 교육방법도 유인물을 제공하는 등 소극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표 7> 인구사회학적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자녀의 식생활 지도빈도			어머니의 영양교육요구	
		있다	없다	항상 한다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χ^2		χ^2			N(%)	
급지	A 급지	#103(60.6)	68(39.4)	#71(33.2)	#131(60.7)	13(6.1)	#186(87.3)	27(12.7)
	B 급지	112(44.0)	#142(56.0)	83(29.1)	#178(62.1)	#26(8.8)	240(85.4)	#42(14.6)
	C 급지	42(43.8)	#54(56.3)	33(30.3)	#62(56.9)	#14(12.8)	#95(88.0)	13(12.0)
	χ^2	12.810**		9.558*			0.486	
연령	<35	28(34.6)	#53(65.4)	26(26.8)	#60(61.9)	#11(11.3)	#83(89.2)	10(10.8)
	36~40	#153(52.8)	137(47.2)	#117(34.7)	195(57.9)	25(7.4)	#295(88.6)	38(11.4)
	41~45	#54(55.7)	43(44.3)	30(27.5)	#70(64.2)	9(8.3)	88(80.7)	#21(19.3)
	>46	11(33.3)	#22(66.7)	#15(34.9)	23(53.5)	#5(11.6)	34(79.1)	#9(20.9)
	χ^2	13.356**		5.175			6.984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138(44.2)	#174(55.8)	112(30.5)	#217(59.1)	#38(10.4)	#313(86.7)	48(13.3)
	전문대졸	#49(52.1)	45(47.9)	32(31.1)	#63(61.2)	8(7.8)	#93(90.3)	10(9.7)
	대졸이상	#66(62.3)	40(37.7)	#47(36.7)	76(59.4)	5(3.9)	105(82.7)	#22(17.3)
	χ^2	10.633**		5.940			2.863	
어머니 직업	있다	#150(53.0)	133(47.0)	#107(32.3)	193(58.3)	#31(9.4)	#289(88.9)	36(11.1)
	없다	100(43.9)	#128(56.1)	84(31.3)	#163(60.8)	21(7.8)	222(83.5)	#44(16.5)
	χ^2	4.255*		0.601			3.732	
월소득	<200	92(40.7)	#134(59.3)	86(32.0)	150(55.8)	#33(12.3)	#230(86.8)	35(13.2)
	≤200~<300	#52(55.3)	42(44.7)	#40(35.1)	#68(59.6)	695.3	#100(88.5)	13(11.5)
	≤300~<400	#60(50.0)	60(50.0)	#47(34.6)	#80(58.8)	9(6.6)	#116(87.2)	17(12.8)
	≥400	#42(62.7)	25(37.3)	22(28.6)	#52(67.5)	3(3.9)	61(79.2)	#16(20.8)
	χ^2	12.750**		10.550			3.853	
Total	257(49.3)	264(50.7)	197(32.2)	361(59.1)	53(8.7)	521(86.4)	82(13.6)	

* p<0.05, ** p<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8>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에서 어머니에 대한 영양교육 실시방법의 효과 인식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전체 평균점수는 정기적 집단교육이 3.39점, 학교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이 3.30점, 영양상담실 운영이 3.25점, 유인물이 3.22점,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이 3.04점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에서 가장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인물을 통한 영양교육 실시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은희(2001)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에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을 실시 할 경우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유인물, 정기적인 교육, 영양상담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은미(2006)의 연구에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경우 급식관련 유인물을 ‘관심 있게 본다’ 55.8%, ‘메뉴만 본다’ 39.3%, ‘전혀 보지 않는다’ 4.9%로 조사되었고, 최은영(2002)의 연구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한 영양교육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5.3%이었으나 잘 모르겠다와 효과 없다는 의견도 44.8%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학부모 대상의 다양한 영양교육 방법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하겠다.

교육방법 효과에 대한 인식은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유인물제공은 A급지와 B급지가 C급지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 학력, 직업의 유무, 가정의 월소득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가 대면교육 방법이 통신교육 보다 유의적($P < 0.001$)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어머니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이용한 간접 교육인 통신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정기적 영양교육과 영양상담실운영의 대면교육에 대한 효과의 인식이 더 높음을 나타냈다.

부산광역시의 35-44세 여성의 인터넷 사용비율을 보면 ‘매일 사용’ 20.0%, ‘주에 1회사용’ 11.89%, ‘한 달에 1회 이상사용’ 2.7%, ‘한 달에 1회

미만사용' 1.09%, '사용하지 않음' 64.4%로 나타나 절반 이상의 주부들이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므로 web을 통한 교육의 부모교육의 효과를 고려해보아야 하겠다(통계청, 2001).

영양교육방법으로는 대면교육방법이 효과적이며 통신교육방법은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이로운 점은 있지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현재 대부분의 급식학교에서 영양교육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정통신문보다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한다.

이상을 살펴볼 때, 급지, 연령, 학력, 월소득 요인 모두는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에 영향을 주었다. 급지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식생활지도 빈도와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도에서 유인물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1-b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방법 효과 인식정도

M±S.D.

변인	하위 요인	영양교육방법의 효과				
		대면교육		통신교육		
		정기적 집단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유인물	학교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
급지	A 급지	3.41±0.84	3.15±0.90	3.30±0.83 ^b	3.22±0.92	2.98±0.92
	B 급지	3.39±0.75	3.29±0.87	3.23±0.82 ^b	3.33±0.83	3.10±0.94
	C 급지	3.39±0.85	3.37±0.76	3.02±0.97 ^a	3.42±0.87	2.99±0.97
	F value	0.148	2.087	3.308 [*]	1.862	1.115
연령	<35	3.42±0.76	3.26±0.68	3.14±0.86	3.29±0.86	3.08±0.94
	36~40	3.35±0.80	3.20±0.89	3.27±0.83	3.36±0.85	3.08±0.89
	41~45	3.39±0.82	3.29±0.83	3.24±0.88	3.14±0.94	2.85±0.95
	>46	3.53±0.88	3.42±1.06	3.00±0.99	3.26±0.94	2.95±1.20
	F value	0.692	0.886	1.481	1.604	1.627
어머니의 학력	고졸이하	3.40±0.79	3.28±0.86	3.16±0.90	3.35±0.85	3.01±0.95
	전문대졸	3.32±0.84	3.25±0.82	3.37±0.82	3.34±0.88	3.00±0.90
	대졸이상	3.41±0.82	3.16±0.89	3.24±0.76	3.16±0.90	3.12±0.91
	F value	0.464	0.798	2.414	2.196	0.631
어머니 직업	있다	3.35±0.83	3.27±0.83	3.25±0.82	3.36±0.88	3.09±0.94
	없다	3.43±0.77	3.22±0.90	3.17±0.90	3.24±0.87	2.98±0.93
	t value	-1.038	0.699	1.071	1.590	1.291
월소득	<200	3.40±0.82	3.28±0.86	3.20±0.89	3.36±0.84	3.01±0.95
	≤200-<300	3.47±0.74	3.35±0.87	3.28±0.85	3.36±0.91	3.08±1.01
	≤300-<400	3.33±0.83	3.18±0.89	3.15±0.85	3.28±0.90	2.98±0.91
	≥400	3.38±0.79	3.10±0.80	3.29±0.81	3.12±0.90	3.10±0.88
	F value	0.605	1.427	0.615	1.508	0.348
Total		3.39±0.80	3.25±0.86	3.22±0.86	3.30±0.87	3.04±0.94
t-value				-4.089 ^{***}		

측정척도 : 1점(전혀 효과적이지 않다)~5점(매우 효과적이다)

¹⁾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p<0.05,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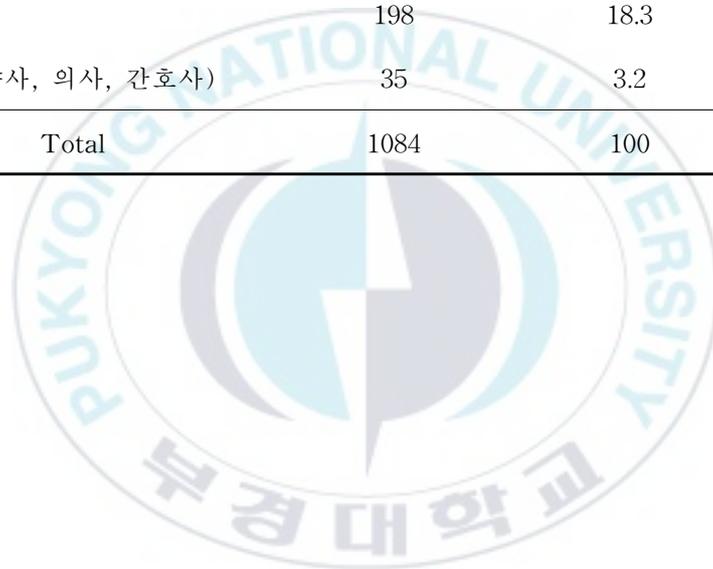
<표 9>에 어머니가 영양교육 정보를 얻는 정보원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텔레비전, 신문 43.6%, 이웃, 친구 18.3%, 인터넷 16%, 전문서적 9.2%, 가족 6.1%, 학교 3.5%, 전문가(영양사, 의사, 간호사) 3.21%로 나타나 전문가나 전문서적보다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전국 중학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하태열(1995)의 조사에서 영양지식 정보원은 책, 신문(43.3%), TV, 라디오(41.5%), 인터넷(5.5%), 주변사람(2.3%), 기타(2.3%)로 보고하였다. 정순자(1985)에서는 연구는 영양정보를 얻는 원천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대중매체가 우세하였고 나이가 많을수록 시청각 매체의존도가 높았음을 보고하였다. 또 최은희(2002)의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의 연구에서 식생활에 대한 정보는 잡지, 신문, TV에서 얻는 경우가 6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이웃이나 친구 13.9%, 식생활관련 전문서적 9.1%, 인터넷 5.5%, 전문가 1.9%, 학교 1.9%로 나타나 주부들은 TV, 라디오, 신문 등 주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전문서적이거나 강연회를 통한 정보 수집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상을 살펴볼 때 대중매체를 통한 영양교육 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았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새로운 건강과 식품정보를 쉽고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 영양 교육적 측면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되거나 허위에 가까운 정보를 담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오히려 잘못된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평생교육의 측면으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표 9> 어머니의 영양지식 정보원

항목	N	%
TV, 신문	473	43.6
인터넷	174	16.1
전문서적	100	9.2
학교	38	3.5
가족	66	6.1
이웃	198	18.3
전문가(영양사, 의사, 간호사)	35	3.2
Total	1084	100



4.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 지식

<표 10>에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 점수와 영양지식 점수 결과를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식행동 점수는 54점 만점에 43.48으로 100으로 환산시 80.5점으로 나타나므로 어머니들의 평균 식생활 점수가 중상 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식행동 점수는 급지의 차이에 따라 A급지와 B급지가 C급지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35세 미만, 36-40세, 41-45세보다 46세 이상에서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대졸이상의 경우가 고졸이하 또는 전문대졸의 경우보다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 유무에 차이에 따라서 직업이 없는 경우에 식생활 점수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김정현(1992)의 연구에서 주부는 식생활 담당자로서 특히 직업이 없을 경우에 더욱 식생활에 관심을 기울이며, 많은 정보와 접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 하였다.

가정의 월평균소득에 따른 차이에서 200만원 미만이 400만원 이상보다 식행동 점수가 유의적($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송병춘 등(1999)의 연구에서도 중원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여성의 식습관점수는 연령과 월수입과 높은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영양지식 점수는 20만점에 15.48으로 100으로 환산시 77.4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경원 등(2004)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양지식 점수가 15.6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영양지식 점수는 급지의 차이에 따라 A급지는 16.10점, B급지는 15.32, C급지는 14.7점으로 각 급지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01$).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 46세 이상이 36-40세, 41-45 보다 유의적($p < 0.05$)으로 낮게 나타났고, 학력에 따른 차이에서 대졸이상이 고졸이하와 전문대졸보다 영양지식 점수가 유의적($p < 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가정의 월소득의 차이에 따라서 200만원 미만이 다른 군보다 유의적($p < 0.001$)으로 낮게 나타나 소득이 낮은 경우 영양지식 점수도 낮게 나타난다.

하태열 등(1995)의 연구에 따르면 영양지식은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 30대와 40대의 차이는 없었고 50대는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 지식은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점수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 정효숙(1995)의 연구에서는 영양지식은 45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고, 학력이 높을수록 영양지식 점수도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나 비취업모보다 취업모의 점수가 낮은편이라고 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어머니의 식행동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모두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영양지식 점수는 직업을 제외한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가설 2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

M±S.D.

변인	하위요인	식행동 점수	영양지식 점수
급지	A 급지	44.22±5.00 ^{b1)}	16.10±2.23 ^c
	B 급지	43.44±4.78 ^b	15.32±2.48 ^b
	C 급지	42.12±5.28 ^a	14.7±3.21 ^a
	F value	6.170 ^{***}	11.723 ^{***}
연령	<35	43.85±4.50 ^b	15.03±3.30 ^{ab}
	36~40	43.78±4.98 ^b	15.72±2.32 ^b
	41~45	43.12±5.12 ^b	15.68±2.34 ^b
	>46	41.36±4.98 ^a	14.74±2.86 ^a
	F value	2.925 [*]	3.250 [*]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42.79±5.00 ^a	15.20±2.65 ^a
	전문대졸	43.73±4.80 ^a	15.60±2.38 ^a
	대졸이상	45.31±4.47 ^b	16.49±1.85 ^b
	F value	12.048 ^{***}	13.058 ^{***}
어머니 직업	있다	43.08±5.23	15.68±2.55
	없다	43.96±4.66	15.28±2.60
	t value	-2.047 [*]	1.876
월소득	<200	42.76±5.38 ^a	14.95±2.92 ^a
	≤200~<300	43.78±5.05 ^{ab}	15.65±2.06 ^b
	≤300~<400	43.83±4.41 ^{ab}	15.91±2.33 ^b
	≥400	45.04±4.00 ^b	16.33±2.21 ^b
	F value	4.350 ^{***}	7.842 ^{***}
	Total	43.48±4.99	15.48±2.58

¹⁾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 p<0.05, *** p<0.001

<표 11>에 어머니의 영양지식점수를 ‘낮음’, ‘보통’, ‘높음’의 3개의 군으로 구분하여 영양지식에 따른 식행동 점수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영양지식이 높은 군의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 영양지식이 실제 식생활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ims(1981)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생활 태도 사이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보고 한 바 있으며 최윤정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영양지식 점수가 자녀의 식사의 질 사이에도 높은 상관이 있다는 보고되어 본 연구와 일치된다.

<표 12>에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행동 및 대상자의 일반특성을 상관관계로 제시하였다. 영양지식과 식행동의 상관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하나 상관계수는 0.182($p < 0.01$)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였다. 이 결과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에서 송병춘(1999)에서도 영양지식과 식습관의 상관관계가 0.184($p < 0.05$)로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영양지식과 학력의 상관관계는 0.209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p < 0.05$), 월평균 소득과는 0.232의 값을 나타냈다($p < 0.05$). 식행동은 연령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p < 0.05$), 학력과 월평균소득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p < 0.05$).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가설영양지식이 높은 군에서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나므로 영양지식이 높을수록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영양지식을 높이기 위한 어머니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어머니의 영양지식에 따른 식행동 점수

M±S.D.

변인	하위요인	식행동 점수
영양지식	낮음	41.20±5.48 ^{a1)}
	보통	43.35±5.06 ^b
	높음	44.83±4.27 ^c
F value		9.848 ^{***}

¹⁾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p<0.001

<표 12>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행동 및 인구사회학적 변수와의 관계

	영양지식	식행동	연령	학력	월평균소득
영양지식		0.182 ^{**}	-0.012	0.209 ^{**}	0.232 ^{**}
식행동			-1.31 ^{**}	0.162 ^{**}	0.199 ^{**}
연령				-0.054	0.072
학력					0.430 ^{**}
월평균소득					

**p<0.01

5.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에 따른 자녀 영양교육 인식

<표 13>에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점수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식행동이 낮은 군이 10.8%, 보통인 군이 28.8%, 높은 군이 45.0%, 매우 좋은 군이 27.1%로 나타났고, 식행동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영양교육이 정기적으로 실시, 영양교육 실시시기, 영양교육에 실시횟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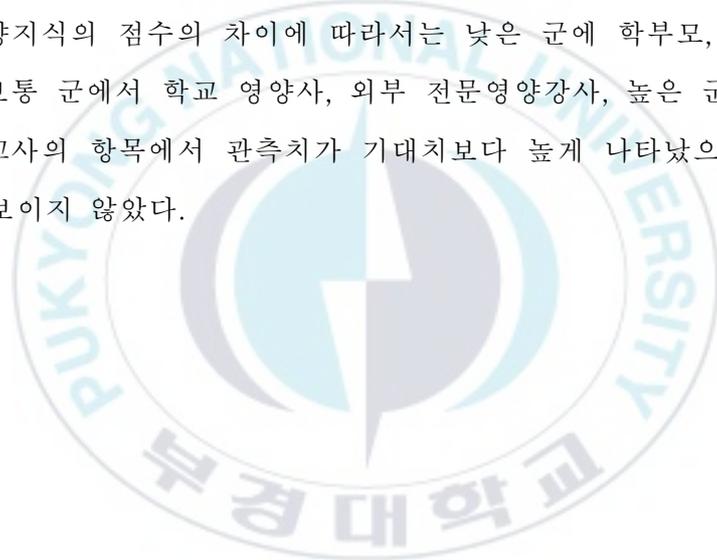
영양지식이 낮은 군이 10.9%, 보통인 군이 67.4%, 높은 군이 21.6%로 나타났다. 영양지식 점수의 차이에 따른 정기적 영양교육의 실시에 대한 인식은 영양지식이 낮은 군과 보통인 군에서는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높은 군에서는 ‘한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육의 실시시기는 낮은 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보통인 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높은 군에서는 취학전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영양지식 점수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횟수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4>에 어머니의 식행동 점수의 차이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이 실시 시간과 영양교육 담당자를 제시하였다.

식행동 점수에 차이에 따라서 영양교육 실시시간은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식행동이 낮은 군은 특별활동시간, 급식시간, 재량활동 시간, 개인상담, 보통 군은 특별활동시간, 급식시간, 학교방송, 좋은 군은 관련교과 시간, 재량활동시간, 학교방송, 매우 높은 군은 관련교과 시간, 개인상담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 점수에 차이

에 따른 유의적($p < 0.01$) 차이를 나타냈는데, 지식점수가 낮은 군에서는 특별활동시간, 재량활동시간, 개인상담, 보통 군은 관련교과 시간, 재량활동시간, 학교방송, 높은 군은 관련교과 시간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행동의 점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담당자는 식행동 점수가 낮은 군에서 학교영양사, 보통인 군에서 담임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높은 군에서는 학교영양사, 보건교사, 매우 높은 군에서 담임교사, 외부 전문 영양강사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지식의 점수의 차이에 따라서는 낮은 군에 학부모, 외부 전문 영양강사, 보통 군에서 학교 영양사, 외부 전문영양강사, 높은 군에서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3>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인식요구

변인	하위요인	Total	정기적 영양교육실시 여부			영양교육 실시시기			영양교육 실시횟수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취학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1회/주 이상	2회/한달	>1회/ 한달 이하
식행동 점수	낮음	60(10.8)	11(8.3)	#14(23.3)	35(58.3)	25(41.7)	#25(41.7)	#10(16.7)	#21(35.0)	17(28.3)	22(36.7)
	보통	159(28.8)	#35(22.0)	28(17.6)	#96(60.4)	#87(54.7)	59(37.1)	13(8.2)	36(22.6)	#62(39.0)	61(38.4)
	높음	249(45.0)	46(18.5)	#57(22.9)	#136(58.6)	112(45.0)	#107(43.0)	#30(12.0)	#73(29.3)	78(31.3)	#98(39.4)
	매우 높음	23(27.1)	#23(27.1)	#19(22.4)	43(50.6)	#50(58.5)	30(35.3)	5(5.9)	18(21.2)	#38(44.7)	29(34.1)
	χ^2			4.986		10.821		9.390			
영양지식 점수	낮음	65(10.9)	11(16.9)	#16(24.6)	#38(58.5)	28(43.1)	24(36.9)	#13(20.0)	16(24.6)	#24(36.9)	25(38.5)
	보통	402(67.4)	78(19.4)	#88(21.9)	#236(58.7)	197(49.0)	#161(40.0)	44(10.9)	#115(28.6)	127(31.6)	#160(39.8)
	높음	129(21.6)	#35(27.1)	23(17.8)	71(55.0)	#72(55.8)	48(37.2)	9(7.0)	32(24.8)	#51(39.5)	46(35.7)
	χ^2			4.694		8.504		3.165			

: 관측치 > 기대치

<표 14>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담당자

N(%)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실시시간						영양교육 담당자				
		관련교과	특별활동	급식시간	재량활동	학교방송	영양상담	담임교사	학교 영양사	보건교사	학부모	외부 전문 영양강사
식행동 점수	낮음	23(38.3)	#11(18.3)	#16(26.7)	#6(10.0)	3(5.0)	#1(1.7)	6(10.0)	#34(56.7)	5(8.3)	5(8.3)	10(16.7)
	보통	67(42.4)	#16(10.1)	#42(26.6)	#17(10.8)	#15(9.5)	1(0.6)	#20(12.6)	85(53.5)	#24(15.1)	#5(3.1)	25(15.7)
	높음	#130(52.4)	18(7.3)	47(19.0)	#26(10.5)	#24(9.7)	3(1.2)	24(9.7)	#143(57.7)	#37(14.9)	4(1.6)	40(16.1)
	매우 높음	#54(63.5)	3(3.5)	13(15.3)	5(5.9)	7(8.2)	#3(3.5)	#11(13.1)	45(53.6)	11(13.1)	0(0)	#17(20.2)
	\bar{x}			28.057*					15.137			
영양지식 점수	낮음	22(34.4)	#16(25.0)	#17(26.6)	5(7.8)	3(4.7)	#1(1.6)	5(7.8)	35(54.7)	8(12.5)	#5(7.8)	#11(17.2)
	보통	#200(49.9)	27(6.7)	88(21.9)	#44(11.0)	#37(9.2)	5(1.2)	44(11.0)	#223(55.8)	56(14.0)	9(2.3)	#68(17.0)
	높음	#74(57.4)	7(5.4)	29(22.5)	9(7.0)	8(6.2)	2(1.6)	#21(16.3)	66(51.2)	#19(14.7)	3(2.3)	20(15.5)
	\bar{x}			32.784***					10.063			

* p<0.05,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15>에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점수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정도 및 필요이유에 대한 인식정도, 교육내용의 중요도를 제시하였다.

식행동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교육 필요이유에 관한 인식도에서 적절한 성장발육의 항목에서 식행동이 낮은 군이 다른 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 이외의 다른 항목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필요에 대한 인식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영양지식의 차이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의 필요이유에 관한 인식도에서 적절한 성장발육의 항목은 영양지식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에서 인식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식사예절의 항목은 낮은 군이 높은 군보다 인식도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만학생지도 항목은 영양지식이 낮은 군이 보통 군과 높은 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인식도를 나타낸다.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의 식행동에 차이에 따른 ‘올바른 식습관’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 군이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고, ‘식품선택과 섭취’ 항목에서도 낮은 군이 보통인 군, 좋은 군, 매우 좋은 군보다 유의적($p<0.001$)으로 낮게 나타났다. ‘식사예절’에 대한 중요도는 식행동 점수가 낮은 군보다 보통인 군과 좋은 군에서 높게 나타나고, 보통인 군과 좋은 군보다 매우 좋은 군에서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난다.

영양지식의 차이에 따른 ‘영양소의 종류 및 역할과 기초식품군’에 대한 중요도가 영양지식이 낮은 군이 보통인 군과 높은 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영양지식이 낮은 경우 영양의 기초지식인 영양소와 기초식품군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식행동 점수에 따라서 영양교육 필요 이유 중 적절한 성장발육의 항목에서,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도는 올바른 식습관, 식품의 선택과 섭취, 식사예절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영양지식점수에 따라서 영양교육 필요 이유 중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예절, 비만학생 지도항목에서, 영양교육의 내용의 중요도는 영양소의 역할과 기초식품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a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는 학교에서 아동의 영양교육 실시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5>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영양교육 필요이유 및 교육내용의 중요도

M±S.D.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¹⁾ 필요정도	영양교육 필요이유 ²⁾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 ³⁾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예절	편식교정	비만학생 지도	질병예방	영양지식 습득	올바른 식습관	채증관리	건강, 질병 문제	영양소의 역할 기초식품군	안전한 식품섭취	식품선택 과 섭취	식사예절	전통 식문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식 행 동	낮음	4.53±0.68	4.97±1.51 ^{a4)}	3.81±1.56	3.76±1.37	2.67±1.47	3.76±1.55	2.24±1.44	4.37±0.71 ^a	4.13±0.79	4.32±0.81	3.97±0.78	4.45±0.59	3.97±0.66 ^a	4.03±0.64 ^a	4.00±0.69	4.28±0.67
	보통	4.49±0.64	5.30±1.23 ^b	3.75±1.52	3.87±1.43	2.61±1.36	3.57±1.37	2.07±1.36	4.54±0.5 ^b	4.20±0.71	4.38±0.66	4.05±0.68	4.43±0.59	4.25±0.64 ^b	4.22±0.63 ^b	3.99±0.70	4.31±0.63
	높음	4.55±0.55	5.45±0.98 ^b	3.56±1.47	3.78±1.31	2.53±1.32	3.76±1.41	2.06±1.41	4.62±0.53 ^b	4.23±0.59	4.43±0.59	4.11±0.65	4.46±0.57	4.34±0.66 ^b	4.38±0.56 ^{bc}	4.10±0.71	4.40±0.60
	매우 높음	4.49±0.69	5.45±0.83 ^b	3.69±1.56	3.81±1.22	2.21±1.17	3.87±1.39	1.97±1.29	4.54±0.50 ^b	4.24±0.66	4.45±0.65	4.19±0.65	4.57±0.52	4.43±0.57 ^b	4.42±0.57 ^c	4.13±0.75	4.47±0.55
	F value	0.360	3.338 [*]	0.730	0.175	1.958	0.906	0.427	3.702 [*]	0.429	0.716	1.425	1.145	7.255 ^{***}	7.757 ^{***}	1.253	1.875
영 양 지 식	낮음	4.52±0.73	5.07±1.45 ^a	4.20±1.48 ^b	3.54±1.49	2.95±1.38 ^b	3.34±1.35	2.25±1.65	4.45±0.53	4.13±0.89	4.37±0.75	3.86±0.96 ^a	4.53±0.62	4.21±0.72	4.25±0.67	4.06±0.71	4.27±0.78
	보통	4.52±0.62	5.31±1.14 ^{ab}	3.69±1.52 ^b	3.85±1.32	2.55±1.33 ^a	3.72±1.44	2.07±1.43	4.56±0.55	4.25±0.66	4.41±0.66	4.08±0.68 ^b	4.46±0.57	4.31±0.64	4.29±0.63	4.05±0.74	4.38±0.63
	높음	4.57±0.51	5.50±0.89 ^b	3.52±1.45 ^a	3.89±1.28	2.37±1.29 ^a	3.81±1.40	1.91±1.18	4.60±0.51	4.15±0.63	4.40±0.63	4.16±0.63 ^b	4.48±0.56	4.32±0.62	4.34±0.52	4.11±0.66	4.36±0.59
	F value	0.378	3.072 [*]	4.190 [*]	1.523	3.912 [*]	2.337	1.267	1.714	1.729	0.078	3.964 [*]	0.383	0.727	0.582	0.376	0.920

측정척도 : ¹⁾ 필요정도 :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매우 필요하다), ²⁾ 필요이유 : 6점(1순위)~1점(6순위) ³⁾ 중요성 :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

⁴⁾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 p<0.05, *** p<0.001

6.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 교육 경험 및 실태

<표 16>에 어머니의 식행동 점수와 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자녀의 식생활지도 실태 및 영양교육요구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식행동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는 식행동이 낮은 군, 보통인 군에서 '경험 없다', 식행동이 높은 군 또는 매우 높은 군에서는 '경험 있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송병춘(1999)는 식행동의 점수가 높은 경우에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 증가하므로 영양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식생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습득한 영양지식을 식생활에 응용하려는 실천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도 더불어 실행되어야 한다.

식행동 점수의 따른 차이에서 가정에서의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는 유의적인($p < 0.001$) 차이를 나타냈는데, 식행동이 낮은 군은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인 군에서는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 좋은 군 또는 매우 좋은 군은 '항상 한다'의 문항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 점수의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는 유의적인($p < 0.001$) 차이를 보이는데, 영양지식이 낮은 군, 보통인 군은 '경험 없다', 높은 군에서는 '경험 있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식생활 지도는 영양지식의 차이에 따라서 유의적($p < 0.001$)인 차이를 보였는데, 낮은 군은 '거의 하지 않는다', 보통인 군은 '가끔 한다', 높은 군은 '가끔 한다', '항상 한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요구의 항목은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을 살펴볼 때, 가정에서 어머니는 자녀가 식생활을 직접 지도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어머니의 행동과 영양지식은 자녀의 식생활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갖는 경우가 있으며 옳지 않은 지식을 실제 식생활에 적용하는 기회가 생기므로 영양전문가로 부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가 요구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들 집단으로 영양교육 대상 확대가 추진되어 할 것으로 여겨진다.

<표 17>에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점수에 따른 영양교육 방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식행동의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유인물 제공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식행동 점수가 낮은 군과 보통인 군보다 높은 군과 매우 높은 군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p<0.01$)를 나타냈다. 그 외의 정기적 영양교육, 영양상담실, 학교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 이메일 영양상담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영양지식의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방법제공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이 영양지식이 ‘낮은 군’보다 ‘보통인 군’과 ‘높은 군’에서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0.01$). 그 외의 유인물제공, 정기적인 영양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학교홈페이지의 급식게시판의 항목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군에서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고 응답된 비율은 고졸이하 29.9%, 대졸은 90.1%, 소득이 증가할수록 사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율은 증가하므로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고 영양지

식도 어머니의 교육정도, 가정의 월소득의 영향을 받으므로 이로 인한 인터넷 사용하는 비율과 연관성이 고려되어진다.

이상을 살펴 볼 때, 식생활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식생활 빈도와 학교에서 영양교육 방법의 유인물 제공에 대한 효과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경험 유무 및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와 학교에서 영양교육 방법의 이메일을 통한 방법의 효과 인식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가설 3-b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는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됨을 알 수 있다.



<표 16>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		자녀의 식생활 지도빈도			어머니의 영양교육요구	
		있다	없다	항상 한다	가끔 한다	거의하지않는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식행동	낮음	18(35.3)	#33(64.7)	13(21.7)	35(58.3)	#12(20.0)	49(83.1)	#10(16.9)
	보통	68(48.6)	#72(51.4)	34(21.4)	#107(63.7)	#18(11.3)	#138(87.3)	20(12.7)
	높음	#106(50.7)	103(49.3)	#90(36.1)	145(58.2)	14(5.6)	207(84.5)	#38(15.5)
	매우높음	#41(59.4)	28(40.6)	#44(51.8)	38(44.7)	3(3.5)	#77(91.7)	7(8.3)
	χ^2	6.999		39.357***			3.389	
영양지식	낮음	25(41.7)	#35(58.3)	21(32.3)	32(49.2)	#12(18.5)	51(78.5)	#14(21.5)
	보통	159(46.8)	#181(53.2)	129(32.1)	#242(60.2)	31(7.7)	#343(86.8)	52(13.2)
	높음	#67(62.6)	40(37.4)	#43(33.3)	#78(60.5)	8(6.2)	#115(89.1)	14(10.9)
	χ^2	9.855**		9.866**			4.383	

** p<0.01,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17> 어머니의 식행동·영양지식 점수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방법 효과에 대한 인식

M±S.D.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방법의 효과				
		유인물	정기적 집단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학교홈페이지급 식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
식행동	낮음	2.93±0.94 ^{a1)}	3.32±0.86	3.51±0.78	3.30±0.93	3.00±1.08
	보통	3.15±0.86 ^{ab}	3.35±0.77	3.24±0.91	3.42±0.85	3.05±0.91
	높음	3.27±0.81 ^b	3.39±0.78	3.20±0.82	3.29±0.89	3.06±0.91
	매우 높음	3.34±0.90 ^b	3.46±0.95	3.20±0.91	3.29±0.79	3.06±0.95
	F value	3.384 ^{**}	0.393	2.032	0.807	0.069
영양지식	낮음	3.18±0.89	3.31±0.77	3.40±0.78	3.22±0.94	2.75±0.91 ^a
	보통	3.18±0.86	3.37±0.79	3.20±0.89	3.32±0.88	3.01±0.95 ^b
	높음	3.38±0.79	3.48±0.83	3.30±0.81	3.30±0.83	3.21±0.89 ^b
	F value	2.606	1.167	1.563	0.386	4.925 ^{**}

측정척도 : 1점(전혀 효과적이지 않다)~5점(매우 효과적이다)

¹⁾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 p<0.01

7.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영양교육 인식

<표 18>에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에서 영양교육의 인식 결과를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학교에서의 자녀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경험이 있는 경우 '실시 한다', 경험이 없는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 '잘모르겠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보였는데, 식생활 지도를 항상 하는 경우는 학교에서 영양교육을 '한다'와 '하지 않는다'와 가끔 실시하는 경우에서 '모르겠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교육요구의 차이에 따른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취학전', 영양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에 차이에 따른 유의적($p < 0.05$)인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에게 식생활 지도를 항상 하는 경우는 '취학전', 가끔 실시하는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거의하지 않는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의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의 실시시기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 식생활 지도 빈도의 차이에 따른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 횟수는 유의적($p < 0.01$)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자녀에게 식생활 지도를 항상 하는 경우에 '주 1회 이상 실시', 가끔 하는 경우 '한 달에 2회 이상 실시', '1달에 1회 이하로 실시', 거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 달에 1회 이하'로 실시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난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에 따른 차이에서 정기적인 학교 영양교육 실시, 영양교육 실시시간, 영양실시 횟수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을 살펴볼 때 자녀의 식생활을 직접 지도하는 어머니일수록 감수성이 예민하여 무엇이든 잘 받아들이는 초등학교이전이나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과 건강과의 관계를 인식시키고 적절한 영양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녀의 식생활 지도를 자주하는 어머니일수록 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18>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 인식

변인	하위요인	N(%)								
		정기적 영양교육 실시 여부			영양교육 실시 시기			영양교육 실시 횟수		
		한다	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취학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1/주	2/한달	>1/한달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있다	#65(25.3)	48(18.7)	144(56.0)	#143(55.6)	87(33.9)	27(10.5)	#73(28.4)	84(32.7)	#100(38.9)
	없다	39(14.8)	#58(22.0)	#167(63.3)	117(44.3)	#115(43.6)	#32(12.1)	67(25.4)	#99(37.5)	98(37.1)
	χ^2	9.052*			6.812*			1.413		
자녀의 식생활지 도빈도	항상한다	#54(27.4)	#42(21.3)	101(51.3)	#123(62.4)	60(30.5)	14(7.1)	#71(36.0)	66(33.5)	60(30.5)
	가끔한다	67(18.6)	76(21.1)	#218(60.4)	171(47.4)	#152(42.1)	38(10.5)	88(24.4)	#128(35.5)	#145(40.2)
	거의하지 않는다	4(7.5)	11(20.8)	#38(71.7)	11(20.8)	#27(50.9)	#15(28.3)	9(17.0)	16(30.2)	#28(52.8)
χ^2	13.108**			39.446***			15.514**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	원한다	105(20.2)	112(21.5)	#304(58.3)	#269(51.6)	198(38.0)	54(10.4)	#150(28.8)	#180(34.5)	191(36.7)
	원하지 않는다	#20(24.4)	17(20.7)	45(54.9)	34(41.5)	#37(45.1)	#11(13.4)	16(19.5)	26(31.7)	#40(48.8)
	χ^2	0.780			2.990			5.100		

* p<0.05, ** p<0.01,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표 19>에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의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영양교육 담당자를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실시시간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관련교과, 경험이 없는 경우 특별활동, 급식시간, 재량활동, 학교방송, 영양 상담실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의 차이에 따라서 자녀의 식생활 지도를 항상 한다는 경우는 관련교과, 가끔 지도하는 경우는 특별활동, 급식시간, 재량활동, 학교방송, 영양상담, 거의하지 않는 경우는 특별활동, 재량활동에서 관측치보다 기대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에 따른 영양교육 실시시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관련교과시간에 영양교육을 실시하기를 원했고, 가정에서 자녀에 식생활 지도를 많이 하는 경우에 관련교과시간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의 유무에 따른 영양교육 담당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의 식생활 지도의 빈도에 따른 차이에서 항상 한다는 경우에서 학부모의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영양교육 요구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담당자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표 19>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 실시시간 및 영양교육 담당자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실시시간						영양교육 담당자					N(%)
		관련교과	특별활동	급식시간	재량활동	학교방송	영양상담	담임교사	학교영양사	보건교사	학부모	외부전문 영양강사	
어머니의 영양교육경험	있다	#137(53.5)	22(8.6)	51(19.9)	25(9.8)	18(7.0)	3(1.2)	#32(12.5)	137(53.7)	#41(16.1)	#9(3.5)	36(14.1)	
	없다	116(44.1)	#24(9.1)	#66(25.1)	#29(11.0)	#24(9.1)	#4(1.5)	29(11.0)	#156(59.3)	31(11.8)	6(2.3)	#41(15.6)	
		χ^2 5.110						3.570					
자녀의 식생활지도 빈도	항상한다	#118(60.2)	12(6.1)	40(20.4)	12(6.1)	12(6.1)	2(1.0)	21(10.7)	104(53.1)	25(12.8)	#9(4.6)	#37(18.9)	
	가끔한다	161(44.6)	#35(9.7)	#87(24.1)	#38(10.5)	#34(9.4)	#6(1.7)	#46(12.8)	#199(55.6)	#54(15.1)	6(1.7)	53(14.8)	
	거의 하지 않는다	24(46.2)	#6(11.5)	10(19.2)	#8(15.4)	4(7.7)	0(0)	4(7.5)	#33(62.3)	5(9.4)	#2(3.8)	#9(17.0)	
		χ^2 17.275						8.651					
어머니의 영양교육요구	원한다	251(48.4)	44(8.5)	#121(23.3)	#52(10.0)	43(8.3)	#8(1.5)	60(11.6)	285(55.1)	71(13.7)	#16(3.1)	#85(16.4)	
	원하지 않는다	#46(56.1)	#8(9.8)	16(19.5)	5(6.1)	#7(8.5)	0(0)	#10(12.2)	#46(56.1)	#13(15.9)	1(1.2)	12(14.6)	
		χ^2 3.858						1.280					

: 관측치 > 기대치

<표 20>에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의 필요 정도 및 필요 이유에 대한 인식,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해 제시하였다.

어머니의 영양교육경험 유무의 차이에 따라 자녀 영양교육 필요 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정에서의 자녀 식생활지도 빈도의 차이에 따른 식생활 지도를 항상 하는 경우와 가끔 하는 경우가 거의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 필요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p<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의 유무,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에 차이에 따른 영양교육의 필요이유에 대한 인식의 항목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녀의 식생활 지도 빈도에 따른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성은 모든 항목에서 지도빈도가 높은 경우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다.

어머니의 교육요구에 따른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성은 모든 항목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다 ‘건강 질병문제’에서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였고, ‘영양소의 역할과 기초식품군’에서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0.001$).

이상을 살펴볼 때 어머니가 가정 내에서 식생활 지도를 할수록 자녀의 영양문제와 식습관 문제를 인식하므로 학교 영양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20>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따른 영양교육 필요정도 및 필요이유에 대한 인식, 내용의 중요도

M±S.D.

변인	하위요인	영양교육 ¹⁾ 필요정도	영양교육 필요이유 ²⁾						영양교육내용 ³⁾								
			적절한 성장발육	올바른 식사예절	편식교정	비만학생 지도	질병예방	영양지식 습득	올바른 식습관	체중관리	건강,질 병문제	영양소의 역할 기초식품군	안전한 식품섭취	식품선택 과 섭취	식사예절	전통 식문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있다	4.52±0.60	5.33±1.08	3.66±1.58	3.93±1.29	2.49±1.31	3.61±1.46	2.10±1.38	4.58±0.55	4.20±0.69	4.41±0.66	4.08±0.70	4.46±0.57	4.35±0.58	4.37±0.59	4.12±0.67	4.40±0.62
	없다	4.51±0.65	5.30±1.23	3.75±1.42	3.74±1.40	2.59±1.35	3.76±1.39	2.10±1.50	4.52±0.54	4.24±0.66	4.38±0.67	4.04±0.75	4.47±0.57	4.23±0.68	4.23±0.60	4.03±0.76	4.33±0.66
	χ^2	0.047	0.284	-0.670	1.560	-0.879	-1.181	0.013	1.265	-0.608	0.543	0.611	-0.200	2.145 [*]	2.564	1.493	1.100
자녀의 식생활지 도빈도	항상한다	4.64±0.57 ^{ab}	5.32±1.14	3.71±1.57	3.79±1.29	2.46±1.31	3.80±1.42	2.03±1.27	4.70±0.46 [*]	4.31±0.63	4.53±0.59 ^b	4.16±0.72	4.61±0.51 ^b	4.48±0.60 ^b	4.43±0.60 ^c	4.17±0.73 ^b	4.51±0.62 ^b
	가끔한다	4.50±0.59 ^b	5.37±1.06	3.69±1.51	3.81±1.36	2.55±1.30	3.66±1.42	2.10±1.48	4.53±0.53 ^b	4.19±0.69	4.36±0.68 ^{ab}	4.04±0.70	4.41±0.58 ^a	4.21±0.65 ^a	4.26±0.59 ^b	4.01±0.71 ^{ab}	4.30±0.64 ^a
	거의하지 않는다	4.31±0.78 ^a	5.13±1.56	3.60±1.30	3.91±1.40	2.79±1.60	3.66±1.43	2.17±1.46	4.31±0.73 ^a	4.10±0.76	4.20±0.73 ^a	3.94±0.76	4.41±0.61 ^a	4.10±0.65 ^a	4.00±0.63 ^a	3.90±0.73 ^a	4.20±0.66 ^a
	χ^2	7.493 ^{**}	0.952	0.113	0.151	1.141	0.589	0.261	13.079 ^{***}	2.939	6.942 ^{**}	2.846	8.249 ^{***}	14.004 ^{***}	11.960 ^{***}	4.599 ^{**}	8.535 ^{***}
어머니의 영양교육 요구	원한다	4.56±0.59	5.36±1.12	3.67±1.52	3.78±1.35	2.53±1.32	3.72±1.41	2.09±1.39	4.58±0.54	4.23±0.69	4.43±0.66	4.11±0.70	4.11±0.70	4.48±0.57	4.31±0.61	4.07±0.72	4.37±0.65
	원하지 않는다	4.33±0.69	5.17±1.16	3.85±1.46	4.04±1.26	2.70±1.44	3.52±1.51	2.04±1.58	4.48±0.50	4.17±0.65	4.24±0.66	3.79±0.72	3.79±0.72	4.41±0.57	4.20±0.60	3.93±0.74	4.26±0.65
	χ^2	3.308 [*]	1.357	-0.916	-1.559	-1.060	1.090	0.266	1.521	0.644	2.400 [*]	3.809 ^{***}	1.028	1.295	1.512	1.670	1.478

측정척도 : ¹⁾ 필요정도 : 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5점(매우 필요하다), ²⁾ 필요이유 : 6점(1순위)~1점(6순위) ³⁾ 중요성 :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

⁴⁾ 행의 알파벳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낸다. * p<0.05, ^{*} p<0.01, ^{***} p<0.001

<표 21>에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자녀의 영양교육실태 및 요구에 관한 내용이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유무에 따른 차이에서 자녀의 식생활 지도빈도는 유의적($p < 0.001$)인 차이를 나타내는데,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항상 한다’, 경험이 없는 경우 ‘가끔 한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항목에서 관측치가 기대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의정(1990)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학부모 지도가 51.8%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영양교육의 경험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영양교육 욕구는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집단에서 요구한다는 응답이 86.5%,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집단에서는 84.7%로 응답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이 자녀의 식사지도 태도에 영향을 끼치므로 아동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학부모 영양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적극 실시되어야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이상을 살펴 볼 때, 영양교육 경험이 있고 아동에 대해 식생활 지도를 자주하는 어머니는 영양교육을 취학 전에 실시하기 원하였고 또한 1주일에 1회 이상 영양교육 실시를 원하고 있었다. 따라서, 가설 4의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는 학교에서의 아동 영양교육 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부분 채택됨을 알 수 있다.

<표 21>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에 따른 자녀의 식생활지도 빈도 및
영양교육 요구

변인	하위요인	자녀의 식생활 지도빈도			어머니의 영양교육요구	
		항상한다	가끔한다	거의하지 않는다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영양교육 경험	있다	#104(40.5)	145(56.4)	8(3.1)
	없다	57(21.6)	#168(63.6)	#39(14.8)	222(84.7)	#40(15.3)
χ^2		35.770***			0.616	

*** p<0.001

: 관측치 > 기대치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가정에서 식생활 관리자로서 자녀들의 식습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어머니들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식행동 및 영양지식의 수준에 따른 자녀와 학부모의 교육 요구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른 학교에서의 영양교육에 대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앞으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위한 가설 설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학교에서 자녀 및 어머니의 영양교육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에 영향을 준다.

셋째, 어머니의 식행동 및 영양지식 점수가 학교에서 자녀 및 어머니의 영양교육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

넷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가 학교에서 자녀 영양교육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조사를 사용하였고,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소속의 6개 지역교육청에 소속된 각 1개교의 초등학교를 선정하여 4학년 학부모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611부를 회수하여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전문대졸과 대졸이상에서 초등학교 이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P < 0.01$). 영양교육 실시횟수는 고졸이하에서 주 1회 이상 실시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고($p < 0.05$),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에 주 1회 이상 실시가 높은 비율로 응답되어($p < 0.05$),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경우가 학교에서 더 자주 영양교육을 실시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영양교육담당자는 가정에서의 학부모 지도보다는 학교에서 전문가인 영양사가 영양교육을 담당해주기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없는 어머니는 학교 영양사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로 응답한 경우는 낮은 비율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p < 0.01$).

영양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에 관한 전체 응답자의 적절한 성장발육, 편식교정, 식품으로 인한 질병예방, 식사예절, 비만아동지도, 식품과 영양지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편식교정의 항목은 만46세 이상이 45세 미만의 군들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비만교육은 A급지보다 B급지, C급지($p < 0.05$) 35세 미만보다 46세 이상에서($p < 0.05$) 전문대졸, 대졸보다 고졸이하에서($p < 0.001$)에서 필요이유의 인식도가 높게 나타났다.

영양교육내용에 대한 인식도는 올바른 식습관, 안전한 식품섭취, 건강·질병문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문제, 건강한 체중관리, 식품선택과 섭취, 식사예절, 영양소의 역할·기초식품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바른 식습관의 항목에서 A급지가 B급지, C급지보다($p < 0.001$),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 대졸이상에서($p < 0.01$)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영양소의 역할·기초식품군과 전통식문화 항목에서 45세 미만의 경우들보다 46세 이상에서 낮게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 < 0.05$). 식품선택과 섭취는 고졸보다는

전문대졸이 전문대졸 보다 대졸이, 직업이 있는 어머니가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냈다($p<0.05$).

어머니의 영양교육의 경험은 B, C급지에 비해 A급지($p<0.01$), 학력이 높은 경우($p<0.01$) 어머니가 직업이 있는 경우($p<0.05$) 또는 가정의 월소득이 높은 경우($p<0.01$) 경험이 있다고 응답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의 지도 빈도는 A급지에서는 항상 한다, B, C급지는 가끔 한다와 거의 하지 않는다는 문항에 응답이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방법 효과는 정기적 집단교육, 학교홈페이지의 급식계시판, 영양상담실 운영, 유인물,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니는 인터넷이나 유인물을 이용한 간접적인 교육보다는 학교에서 직접 실시하는 영양교육에 대한 효과에 대한 인식이 유의적($p<0.001$)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가 영양교육 정보를 얻는 정보원은 전문가나 전문서적보다는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획득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다.

둘째, 식행동 점수는 C급지가 A급지와 B급지보다 유의적($p<0.001$)으로 낮게 나타나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46세 이상에서만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는 고졸이하와 전문대졸보다 대졸이상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월소득에 따라서 200만원 미만보다 400만원 이상이 유의적($p<0.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지식점수는 A급지가 B급지보다, B급지는 C급지보다 유의적($p<0.001$) 높게 나타났고, 연령에 따른 차이에서는 46세 이상에서만 유의적($p<0.05$)으로 낮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라서 대졸이상이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p<0.001$). 영양지식이 높은 군일수록 식행동 점수가 높게 나타난다.

셋째, 영양교육 실시시간은 식생동이 낮은 군보다 좋은 군과 매우 좋은 군에서 관련교과의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p < 0.05$), 영양지식이 높은 군이 낮은 군보다 관련교과의 응답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식행동과 영양지식에 따른 차이에서 영양교육 필요이유에 대한 인식과 영양교육내용의 중요도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식행동·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군에서 따라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과 자녀의 식생활지도 빈도가 증가하였다($p < 0.001$). 영양교육 방법 중 유인물제공의 효과에 대한 인식이 식행동 점수가 높은 군에서 유의적으로($p < 0.01$) 높은 값을 나타내고, 영양지식의 점수가 높은 군에서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이 유의적($p < 0.01$)으로 높게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 식생활지도를 ‘항상 한다’ 응답이 높게 나타나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p < 0.001$)

식생활지도를 항상 하는 경우에 학교에서의 정기적 영양교육의 ‘실시한다’의 응답이 유의적($p < 0.01$)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육 실시시기는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와 자녀의 식생활 지도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취학 전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 < 0.05$). 영양교육 실시횟수는 식행동 지도를 빈번하게 하는 경우에 주 1회 이상 실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영양교육 내용의 중요성은 모든 항목에서 지도빈도가 높은 경우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다.

식생활을 지도를 항상 하는 어머니의 경우 초등학교이전이나 저학년 시기에 아이들에게 적절한 영양지식과 태도를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어머니는 아동에게 식생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도 기회가 된다면 대부분이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영양교육 요구에 대한 인식과 어머니의 영양교육 경험 및 태도에 인구사회학적인 요인 및 식생활태도와 영양지식이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영양교육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없는 학부모에 비해 영양지식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영양지식이 높은 학부모가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아동의 식습관과 어머니의 자녀지도에 대한 태도 및 영양지식은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영양문제와 요구되는 교육요구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학교에서 영양교육 실시는 교육대상자를 고려해야하고, 전체대상의 교육과 더불어 저소득층, 취업모 가정의 아동을 위한 대상별 영양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어머니를 대상의 정기적인 교육이나 희망자에 한한 영양상담의 요구도가 높아 기존의 소극적인 유인물제공의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좀 더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녀의 식습관 형성에 어머니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 가정과 학교가 연계하여 아동 영양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 영양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고, 특히 교육대상자 환경요인을 고려한 영양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셋째, 식행동·영양지식 점수가 높은 학부모가 영양교육에 참여한 경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자녀에게 영양교육을 자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이는 영양에 지식인 높은 학모들의 경우 자신이 습득한 영양지식을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교육 또는 전문기관 등에서의 영양에 대한 정보의 습득이나 상담의 기회가 매우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영양교사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어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부모의 영양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증진되어 자녀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 및 건강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초등학교에서 아동과 학부모를 위한 영양교육의 실시를 위해 교육당국자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고 영양교육지침 마련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결론에 입각하여 후속 연구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를 부산에 거주하는 4학년 학부모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전국 각 지역, 전체학년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영양교육의 실태와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러나 내면적인 인식을 설문지로 조사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조사를 위하여 다양한 관찰법과 면접법 등을 한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여화, 양일선, 김혜영, 이해영(2004), 중·고등학생 대상 영양교육 현황 분석을 통한 영양교육 주제 도출, *한국영양학회지*, 27(10) : 938-945
- 강윤주, 홍창호, 홍영진(1997), 서울시내 초·중·고 학생들의 최근 18년간 (1979-1996) 비만도 변화 추이 및 비만아 증가 양상, *한국영양학회지*, 30(7) : 832-839
- 곽경희(1997), 초등학생 어머니의 학교급식에 대한 견해 및 식사 준비태도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구재욱(1999), 영양교육 실태와 발전방향, 대한영양사회 30주년 학술대회
- 권용경, 장영애, 김정원(2006), 실천적인 영양교육 프로그램 (KHIDIKIDS)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생의 식생활 태도 및 식습관 향상, *한국영양학회지*, 39(8) : 808- 816
- 김경아(1999), 여대생의 건강 관련 요인 분석 및 영양상담 프로그램 개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아, 심영현(1995), 식행동과 신체발달, 인지능력 및 과잉행동 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제 1 보 : 취학전 아동의 식행동 조사에 대한보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 255-268
- 김경애, 정난희, 오순희(2004), 초등학교 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 *한국가정과학회지*, 7(2) : 13-30
- 김경원, 신은미, 문은혜(2004), 대학생의 패스트푸드 이용, 영양지식, 식행동, 영양소 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0(1) : 13-24
- 김경아, 심영현(1995), 식행동과 신체발달, 인지능력 및 과잉행동간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0(4), 255-268
- 김기남, 모수미(1976), 자녀의 식습관 육성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조사연구, *한국영양학회지*, 9(1) : 25-42
- 김기남, 이경신(1996), 남녀 대학생의 영양지식, 식태도 및 식행동, *지역사회 영양학회지*, 1(1), 88-89
- 김상인(1989), 어린이 간식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국민영양*, 59(6) : 10-19
- 김소라(2003), 전북지역 초등학생들의 영양지식, 식이 자기효능감 및 식행동간의 관계,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숙희(1999), 아침식사의 규칙성이 영양소 섭취와 학업성취도 체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영양사 학회지*, 5(2) : 215-224
- 김숙희(2001), 학교급식 운영실태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01년 정책연구 과제, 교육인적자원부
- 김은경(2000), 일부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체격에 따른 성장변화, 식이섭취 상태에 관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이민준, 양일선, 문수재(1992), 한국인의 식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7(1) : 1-8
- 김창임, 박영숙, 이정원, 현화진(2006), 학교영양사가 요구하는 영양교육 교재의 특성,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2(3) : 243-253

- 류재화(2001),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교육참여저해요인 분석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남경(2006), 경기도 지역 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태와 인식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미아, 문현경, 이규한, 서성제(1998), 초등학교의 비만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 정상군과 비만군을 중심으로-, *한국영양학회지*, 31(7) : 1158-1164
- 박미정(2003), 초등학교의 식습관과 영양지식 및 건강상태 조사, *대구가톨릭*
- 박정아, 장경자(2004), 인천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연구, 9(6), 716-724
- 서은나, 김초강(1998), 초등학교 영양교육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양사학회지*, 31(4) : 787-798
- 서정숙, 서정희, 이승교, 정현숙(1994), 기초영양학, 서울 :출판사
- 성영혜(1993), 아동발달과 사회적 지지망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병춘, 김미영(1999), 중원지역 성인 여성의 영양지식·식습관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건국자연과학연구지*, 제10집
- 신용주, 윤혜경, 강인재(1997), 부모교육 및 상담, 서울, 양서원
- 신은경, 신경희, 김현희, 박유화, 배인숙, 이연경(2006), 초등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자, 학습자 및 그 부모 대상 요구도 조사,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12(1) : 89-101
- 심미옥(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교육 학회*, 16(2) : 333-358
- 심영대(1996), 학부모의 학교 효과성에 대한 인식과 자녀교육지원활동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일선(2002,7), 외국의 학교급식과 교육의 연계형태, *교육마당 21*, 38-39
- 우태정(2006), 초등학교 고학년의 활동중심 영양교육교재 및 교사용 지침서 개발과 교재를 활용한 교육효과 분석,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유재련(1997),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부모교육·b참여의 현황과 전망. 「교육이론과 실천」.제7권 제2호.59.
- 유희정, 송경희(1900), 서울시내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 및 식생활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2), 47-55
- 윤은혜(2000),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욕구와 교사의 수용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현숙, 노정숙, 허은실(2001), 경남지역 초등학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 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사학회지*, 6(1) : 84-90
- 윤훈경, 한용봉(1995), 서울지역 국민학생의 체위상태와 식생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7(1), 33-48
- 이경애(2002), 부산지역 초등학교 어머니의 건강관심도, 영양지식 및 영양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7(4) : 464-478
- 이경애(2004), 어머니의 영양태도와 영양지식이 초등학교 자녀의 비만발생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37(6) : 464-478
- 이미숙, 우미경(1999), 교양 영양학 강좌 전후의 대학생의 식습관, 영양지식 및 영양태도 변화, *한국영양학회지*, 32(6) : 739-745

- 이승민(1997), 학교급지에 따른 여중생의 가출성향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민, 이민준, 김수연(2005), 초등학교 재량활동을 통한 영양교육 효과 -4. 5. 6학년 영양지식과 식생활습관 개선을 중심으로-, *대한영양사협회*, 11(3) : 331-340
- 이영숙, 김영남(2000), 중학교 교과서 식생활 내용 분석, *한국 가정과 교육 학회지*, 12(3), 53-63
- 이윤주, 김경미, 장경자(2000), 인천시내 초등학교 학생의 영양교육 효과 분석,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6(2) : 86-96
- 이정숙(2006), 부산 시내 일부 지역의 소득 수준별 학령전 아동의 식생활태도 및 영양상태에 관한 비교,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1(2) : 161-171
- 이정숙, 김갑순(1999), 부산지역 일부 주부들의 영양지식, 식생활가치관 및 식생활비에 따른 식행동 조사, 12(3) : 300-305
- 이지은, 정인경(2005), 초등학생 자녀의 식습관 및 영양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조사, *대한가정학회지*, 43(7) : 67-77
- 이혜상(2005), 초등학교의 영양교육 실태 및 개선점에 관한 연구, 교과교육 연구논집, 2집
- 이희숙, 장유경(1985), 주부들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 : 92-97
- 윤현숙, 노정숙, 허은실(2001), 경남지역 초등교사의 영양교육에 대한인식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사학회지*, 6(1) : 84-90: 92-97
- 장성희(2005), 초등학생 간식섭취 실태와 어머니의 인식도 조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삼녀, 노희경(1998), 농촌초등학생의 식습관 및 식품기호에 관한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3(1) 65-72
- 전숙경(2005), 경기도 초등학생의 식생활 실태조사 : 아동의 결식, 가정의 간식과 외식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생활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인(2006), 어머니의 자녀 식생활 지도관리 실태 및 유아영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근백, 임동규, 이영주, 이석기, 윤승욱(1995), 인천시내 중·고등학생들의 다이어트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가정의학회지*, 16(4), 254-260
- 정순자, 김화영(1985), 주부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연구 -서울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23,(4), 101-108
- 정진환, 하광호(2002), 학교 영양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교사교육학회*, 19(3), 213-233
- 정희정(1995), 서울지역가구의 소득계층별 영양소 및 식품섭취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도숙(2005), 중학생의 패스트푸드 섭취행동과 심리적 특성,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1982), 유치원 모보의 영양지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 *한국영양학회지*, 15(3)
- 최은희(2002), 초등학생 어머니의 식생활 관리실태와 학교급식 및 영양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도 조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http://www.nso.go.kr/>), 통계정보시스템, 가구수·연령별가계수지

- 하태열, 김혜영, 김영진(1995), 전국중학생 어머니의 영양지식과 식습관에 관한 조사, *한국식량학회지* 24(1), 10-18
- 허은실, 양한라, 윤현숙, 이경혜(2002), 경남지역 초등학교 영양사의 영양 교육 실시 현황 및 인식조사,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7(6) : 781-793
- A Basedevant, Boute, J M Borys(1999), Who should be educated? Education strategies: could children educate their par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Obesity*, 23(4) : s10~s13
- Barbara J. Brown(2005), Cooking Classes increase fruit and vegetable intake and food safety behaviors in youth and adult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and Behavior*, 37(2) : 104-105
- B.C. Schorr and D. Sanjur(1972), teen-age food habits, *J AM Diet Assoc*, 64 : 451
- Brown. E. L.(1967), College Student Look at the Basis for their Food Habit, *J. Home. Econ*, 59-784
- Burney J, Haughton B. Efnep(2002), A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demonstrates cost-benefit. *J Am Diet Assoc*. 102: 39-45
- Byrd-Bredvenner C, Grasso D(2000) What is television trying to make children swallow? Content analysis of the nutrition information in prime-time advertisements. *J Nutr Educ*. 32 : 187-195
- CA Vereecken, K Bobelijin, L Maes(2005), School food policy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Belgium-Flanders : does it influence young people's food habits? *Europeans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9 : 271-277
- Daniel R. Zalles(2004), Nutrition education program nutrition pathfinders teaches children how make healthful food choice. *J Nutr&Behav*, 386(37) : 41-42
- Elyse Levine, Carol Olander, Craig Lefebvre(2002), The Team Nutrition Pilot Study : Lesson learned from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school-based intervention,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34(2) : 109-116
- Evelien Reinaerts, Jascha de Nooijer, Math Candel, Nanne de Vries (2007), Explaining School children's fruit and vegetable consumption: The contribution of availability, accessibility, exposure, parental consumption and habit in addition to psychosocial factors, *Appetite*, 48 : 248-258
- Gamble M, Cotugna N(1999), A quarter century of television food advertising targeted at children, *AM J Health Behav*, 23 : 261-195
- G. Macneill, D. R. Ranyne, P. W. Rivers(1998), Socioeconomic and seasonal patterns of adult energy nutrition in south indian village, *Ecol. Food. Nutr.*, 22 : 85
- Herman, Janice R(2006), After-School gardening Improve children's Reported vegetable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 & Behavior*, 35(3) : 2001-200
- Heather Graham, Sheri Zidenberg-Cherr(2005), California teachers perceive

- school gardens as an effective nutritional tool to promote healthful eating habits. *J AM Diet Assoc* 105 : 1797-1800
- Hinton. MA. Eppright ES, Chadderdon H, Wolins L,(1962) Eating behavior and dietary intake of girls 12-14 years old. *J Am Diet Assoc*, 43 : 227-228
- Jay Kandiah And Charlotte Jones(2001),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choice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Early Child Development Care*, 173(23), 269-273
- Jamie Stang, Cynthia Taft Bayerl, Michelle M. Flatt(2006),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 child and adolescent food and nutrition program, *J Am Diet Assoc*, 106(9),1467-1475
- Martha A. Raidl(2004),Team nutrition classes can be used to determine children's eating habits, *Journal of Nutrition Education&Behavior* 36 : 1 01-102
- FDA Consumer(2005), 39(4) : 8-9
- Luepker RV, Perry CL, Mckinary PR, Parcel GS, Stone EJ(1996) Outcomes of a Field Trial to Improve Children's Dietary Patterns and Physical Activity . A Child and adolescent trial for cardiovascular health (CATCH), *JAMA*, 275 : 768-769
- R. Mazur, D. Sanders(1988), Socio-Economics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 Health And Nutrition in Peri-Ur-Ban, *Ecol. Food. Nutr.*,12 : 19
- Sharon Hoerr, Anne E. Utech(2005,) Child control of food choices in head start families, *J Nutr Behav*, 37 : 185-190
- Signorielli N, Lears M.(1992), Television and children's conceptions of nutrition : Unhealthy message, *Health Commun*, 4 : 245-257
- Sims, L. S.(1981), Toward an understanding of attitude assessment in, *J AM Diet Assoc*, 78 : 460
- S.L(1995), Kidergarten students' food preferences are not consist with Knowledge of the Dietary Guideline, *J Am Diet Assoc*, 95 : 219-223
- Stasch. A. R. ET al.(1970), Food Practices and Preferences of some College Students, *Am. Diete. Assoc*, 57-523
- Toby J. Hindin, Isobel R. Joan Dye Gussow(2004), A Media Literacy Nutrition Education Curriculum for Head Start Parents about the Effect of Television Advertising on Their Children's Food Request, *J Am Diet Assoc*, 10492 :192-198
- Winter, M. M, Stanton, L. and Bousley, C.(1999) The effectiveness of a food preparation and nutrition education program for children, *Topics in clinical Nutrition*, 14: 48-59
- Yannis Manios and Anthony Kafatos(1999), Health and Nutrit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 Changes in health knowledge, nutrition intake and physical activity over a six year period. *Public Health Nutrition*, 2(3a): 445-448

--	--	--

어머니의 식행동에 따른 영양교육 요구도

<학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자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식행동이 학교급식에 대한 인식과 영양교육 요구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의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의 통계처리로만 이용됩니다. 질문내용을 잘 읽고 각 문항마다 성실히 답해 주시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보다 나은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이 제공되는데 기여 할 것입니다.

바쁘신 중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6. 12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양교육학과

대학원생 김혜란 (연락처 : 016-850-6819)

지도교수 류은순 (연락처 : 051-620-6336,6330)

1. 학교급식과 연계된 영양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방안

1. 자녀가 수업시간에 정기적으로 영양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2. 영양교육은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취학 전 () ② 초등학교 저학년 () ③ 초등학교 고학년 () ④ 중학교 ()

3. 영양교육의 실시횟수는 어느 정도가 알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주일에 1회 () ② 한 달에 2회 () ③ 한 달에 1회 () ④ 한 학기에 1회 ()

4. 영양교육을 실시할 경우 어느 시간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실과,체육,보건시간 () ② 특별활동시간 () ③ 급식시간 ()
 ④ 재량활동시간 () ⑤ 아침방송시간 () ⑥ 영양상담실의 개인상담 ()

5. 영양교육은 누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담임교사 () ② 학교급식영양사 () ③ 보건교사 ()
 ④ 학부모 () ⑤ 외부의 전문 영양관련 강사 ()

6. 다음 영양교육의 내용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 V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식습관(편식, 결식)					
체중관리(비만, 성장기 다이어트)					
건강, 질병문제(소아당뇨병, 아토피, 빈혈)					
영양소의 종류 및 역할과 기초식품군					
안전한 식품섭취(식중독, 개인위생)					
식품선택과 섭취(패스트푸드, 식품표시제)					
식사에절					
전통식문화(김치, 절기음식, 지역식문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환경문제					

7. 자녀에게 식습관 및 식생활(편식, 영양지도, 식사예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 → 7-1으로 가시오
 ② 필요하다 () }
 ③ 그저 그렇다 () } → 8으로 가시오
 ④ 필요하지 않다 () }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 → 7-2으로 가시오

12. 학교에서 귀하에게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다음 방법들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항목에 V 해주십시오.

항 목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효과적이다	매우 효과적이다
유인물					
학교방문을 통한 정기적 집단 교육					
영양상담실 운영 (희망자에 한해 영양상담)					
학교홈페이지 급식게시판					
이메일을 통한 영양상담					

III. 식행동에 관한 항목 해당항목에 V 해주십시오.

순번	항 목	1주간의 섭취횟수		
		0~2회	3~5회	6~7회
1	규칙적으로 3끼 식사를 한다			
2	식사는 언제나 적당량 먹는다			
3	하루 2끼 이상 단백질 식품을 먹는다			
4	하루 2(3) 이상 밥으로 식사를 한다			
5	녹황색 채소를 먹는다			
6	식물성 기름이 첨가된 음식(나물, 볶음 등)을 먹는다			
7	우유, 유제품을 먹는다			
8	과일, 과일주스(무가당)를 매일 먹는다			
9	해조류(미역, 김 등)를 먹는다			
10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한다			
11	매끼 골고루 식사한다			
12	아침식사를 한다			
13	가공식품(과자, 라면)을 먹는다			
14	외식을 한다			
15	동물성 기름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16	짠 음식, 화학조미료를 넣은 음식을 먹는다			
17	너무 단 음식(설탕, 꿀, 콜라 등)을 먹는다			
18	탄산음료를 하루 2잔정도 마신다			

IV. 영양에 대한 지식 해당항목에 V 해주십시오.

순번	항 목	맞는다	틀리다	모른다
1	하루 권장 열량은 성인여자 2000kcal, 성인남자 2500kcal이다.			
2	무기질과 비타민은 대사를 조절하는 영양소이다.			
3	밥, 빵, 국수에는 탄수화물이 많이 있다.			
4	기름을 전혀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			
5	바람직한 체중 감량은 1주에 0.5~1kg이다.			
6	비빔밥, 김치, 우유로 구성된 식사는 공탕, 밥, 김치로 구성된 식사보다 균형된 영양소를 공급한다.			
7	물이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8	섬유소는 영양분이 없어서 섭취할 필요가 없다.			
9	무공해식품, 자연식품은 보통 식품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하다.			
10	콜레스테롤은 체내에 꼭 필요하다.			
11	식물성기름보다 동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			
12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등에는 칼슘이 많다.			
13	콩제품(콩, 두부, 비지)은 육류, 생선류와 함께 좋은 단백질 식품이다.			
14	탄수화물과 지방은 열과 힘을 내는 영양소이다.			
15	뼈기형, 골다공증은 칼슘섭취 부족이 원인이다.			
16	아침을 건너도 점심, 저녁을 먹으면 괜찮다.			
17	소간, 녹황색 채소, 난황등을 먹으면 빈혈을 예방할 있다.			
18	단백질은 몸의 조직(근육, 혈액 등)을 만드는 영양소이다.			
19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있다			
20	내가 좋아하는 한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건강유지,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족할 수 있다.			

V. 일반적 사항

1. 귀하의 연령은? 만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성 () ② 여성 ()

3.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이하 () ② 고졸 () ③ 전문대졸 () ④ 대졸이상 ()

4. 어머니의 직업의 유·무? ① 있다 () ② 없다 ()

5. 자녀의 수는? ()명

6. 현재 자녀의 출생순위는?
① 첫째 () ② 중간 () ③ 막내 () ④ 독자()

7. 가정의 연간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200만원 미만 () ② 200~250만원 () ③ 250~300만원 ()
④ 300~350만원 () ⑤ 350~400만원 () ⑥ 400만원 초과 ()

♣ 빠진 문항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
☺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대학원에 입학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지만 보람 있었던 2년 6개월의 시간이 이제는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학업의 한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분들에게 짧게나마 진심어린 감사를 전합니다.

석사과정 동안, 너무나도 부족한 저를 언제나 믿어주신 류은순 교수님께 먼저 머리 숙여 마음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는 길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속 깊은 격려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시고, 기도해주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심사를 맡으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신 최진호 교수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저의 미흡한 논문을 자상하게 심사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이경혜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식품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지니신 류홍수 교수님, 인자한 미소로 웃어주시는 남택정 교수님, 학문에 대한 열정을 닦고 싶은 최재수 교수님, 임상영양학의 지존 변대석 교수님, 다정다감하신 김형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따뜻하고 화기애애했던 우리 조리실험실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험실 논문 발표준비 때 달려와 준 은주쌤, 늘 마음으로 의지하는 용미언니, 논문 쓸 때 같이 밤새 도와준 정례, 혜경이 (늘 맛있는 음식 고마워!), 선배 같은 후배 영준, 센스쟁이 민경, 넘치는 자신감 광한, 귀여운 김구,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 박지와 했던 짧았지만 행복했던 실험실 생활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대학원 시간을 더욱 빛나게 해준 교육대학원 동기인 옆에 있다는 존재만

으로 힘이 되는 은진, 산만한 나를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향이언니, 우리 왕 언니 민경언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논문 발표 때 진심으로 응원 해준 교육대학원 후배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박카스이자 樂인 아름, 수영, 혜영, 지혜, 인생의 멋진 멘토 상희언니, 예뻐진 려진, 멀리 있어도 항상 마음만은 가까운 미선, 나연, 영순, 도훈, 날카로운 상담과 물질적 뒷바라지 해주던 경민, 논문 쓸 때 온갖 투정 다 받아준 지현, 언제나 만나면 즐거운 미진, 신미, 민정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잘되라고 진심으로 믿어주고 도와주시던 차주사님과 신천초등학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를 믿음과 사랑으로 지켜봐주던 부모님과 못된 동생에게 과분한 천사 같은 언니, 이해심 많고 듬직한 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작은 열매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또 하나의 계단을 오르기 위해 또 노력 하고자 합니다.

2007년 6월

김혜란